

불교병원 연내개원 불투명

수련병원 실사 무산 ... 내년 하반기 이후 개원 가능할 듯

본교 의과·한의과대학 부속 불교병원의 12월 개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본교는 지난 4일 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실질실시병원 실태조사(이하 실사)하기에 개원준비가 미흡해 2003년도에 재차 신청하겠다'고 밝히며 다음날 예정된 실사를 포기했다. 이번 실사는 △계획한 개원일정에 개원이 가능한가 △건물 공정도 △전문의 인력충원 계획 등을 평가해 수련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병원장 인사와 불교병원 관련 정관 개정이 결정되지 못해 실사가 불가능해졌다. 이날 몇몇 이사들은

불교병원 12월 개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개원 유보를 주장했다. 동국학원 이사인 영배스님(약사사)은 "현 상황에서는 개원보다 진척사항을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병원장 선임 등 중요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차기총장에 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원일정 수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조계종 중앙종회 동국학원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세영스님)는 "개원준비 미흡 등으로 연내 개원이 불가능하며, 빠르면 2003년 3~5월 개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계법상 대학병원이 개원하기 위해서는 다음해 6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지정된 기간에 실사를 받고 수련병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교병원 개원은 2003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원이 연기되면서 본교의 대외적 위상 실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불교병원 직원채용 지원자들은 합격자 발표가 3차례 걸쳐 연기되자 본교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을 게시하고 있다. 동국의료원 박동수 인사과장은 이와 관련해 "개원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생긴 문제"라며 "발표일정이 아직 결정돼

지 않았으며 합격자 인원조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기금을 기부하며 불교병원 건립에 관심을 가졌던 불자들 역시 개원연기 사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학교측이 병원개원이 연기될 경우 건물 유지관리비가 매일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재정적 손실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일 경주 의과대학 학생들은 총장면담을 통해 불교병원의 연내 개원을 요구한 상태다.

▶ 관련기사 2면(보도)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지난 7일 동국관 앞에서 남북 통일 축구가 상영됐다. 이날 학생들은 'One Core' 티셔츠를 입고 응원에 참가해 남북이 하나되는 축구 축제를 즐겼으며 이에 앞서 단풍편은 풍물 장단으로 남북이 하나되는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연합뉴스 기자 snail11@dongguk.edu

본교, 수해 지원대책 마련

장학금 지급·봉사단원 파견 등

본교가 수해 피해 학생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학생복지실은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자녀에게 총 1억여원 규모의 수해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번 장학금은 수재민자녀 중 △보호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이 15만원 이하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에게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풍수해 피해 사실확인서 △보호자, 본인 주

민등록 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서류를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소속 교학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학사지원실은 수해복구작업을 위해 귀향하는 학생에 대해 결강처리하지 않도록 교수에게 권고했다.

한편, 참사탐방사단원과 교직원 약 700여명은 지난 7일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해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이번 봉사단은 버 일으키기 등의 활동을 했으며 이들에게는 5시간의 봉사활동시간이 인정된다.



부처의 새모습 ... 대형괘불탱화 점안식이 지난 5일 중강당에서 열렸다. 본교에 새롭게 만들어진 대형괘불탱화는 수계식 때 사용될 예정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스크린쿼터연대 제2대 이사장 유지나 교수 선임

영화영상학과 유지나 교수가 지난달 24일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제2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지난 93년 출범한 스크린쿼터 감시단을 모태로 2000년 설립된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그동안 문성근 씨가 이사장직을 맡아왔다.

유 교수는 스크린쿼터 감시단 출범 후 직·간접적으로 활동에 참여

해 왔으며 감시단이 사단법인으로 바뀐 뒤부터 국제 연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와 관련해 유지나 교수는 "이사장직을 맡은 것은 학교에서 연구하는 것의 연장선"이라며 "이론과 실천을 접목시키는 계기로 사명감 있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직원 인사 발령

본교는 지난 5일 직원인사를 발령했다.

인사발령지는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장=안준옥 △취업지원팀장=박정훈 △비서실=조경진 △문화예술대학원 교학부=강형석 △예술대학 교학과=최기석 △사회교육원 교학과=조성문 △출판부=송민수 △기획인사처 인사관리팀=주현석 △교무처 학생선발실=김병호 △총무

처 시설관리팀=김용석 △대학원 교학과=박희상 △총무처 총무팀=김규환 △교무처 학사지원실=임조경 △총무처 구매팀=정병경 △간강좌교학처 교학과=김운수 △공과대학 교학과=유진 △문과대학 교학과=이정숙 △국제정보대학원 교학부=임혜순이다.

또한 신규직원인사 발령지는 △학생선발실=최성경 △취업지원팀=조성환 △총무팀=박태경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김나형이다.

총장선출권 확대 요구↑

교수-직원-학생 합의한 선출방식 필요

최근 타대학 사례 분석

올해 들어 신입 총장을 선출한 몇몇 대학들을 보면 직원·학생들의 선거권 확대 논란이 확산됐다. 이는 눈길을 끈다.

경북대는 학생·직원이 선거 참여를 요구하고 나서 총장선출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경북대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은 교수회와 정면대치했다. 공직협은 보선출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결국 이번 총장 선거는 기존과 같이 교수만 참여해 치르고, 9월 중 교수·직원·학생으로 구성된 대책기구를 결성해 직원들의 총장선거 참여를 보장하는 학칙을 만들기로 했다.

전북대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총장선거 투표권을 요구해 교수회와 정면대치했다. 공직협은 선거관의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저지하며 맞섰지만, 교육공무원인 용령에 명시된 총장인명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선에서 물러나 총장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졌다.

경북대와 전북대의 총장선출과정에서 직원·학생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의인 "학내 민주화는 대세"라는 주장은 교수회 측도 공감하는 부분으로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두 대학 직원특위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총장선출, 즉 간선제를 제시한 것이 논란이 됐다. 직원측이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던 추천위 관련 규정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교수회도 '학내 참여민주주의 실천'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상 조율에 실패해 학내 민주주의 확대에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한 셈이 됐다.

한편 한국의대는 교수·직원·학생이 따로 총장선거를 진행해 마찰이 예상됐지만,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동일해 별탈 없이 선거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과정상 교수회가 다른 주체들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아 구성원이 함께 총장을 선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처럼 다른 대학의 총장선출과정에서 나타난 양상은 관련논의를 진행중인 본교 교수회와 직원노조, 학생회도 참고할만 하다. 현재 본교 교수회(회장=박종훈·윤리

문화화)는 자체 총장선출 규정(선출 전 의견개진의 기회를 준다)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노조와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직원노조 강형석 지부장은 "선거과정에 모든 주체가 참여해, 궁극적으로 총장선거 임후보자들이 교수·직원·학생 모두를 위한 공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교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는 몇 차례 논의를 거쳐 다음주 정도 총장선출방법에 대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우리는 지난 98년 송석구 총장 연임과정에서 재단의 일방적인 나침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재단의 비민주적인 결정을 뒤집지 못한 것은 학내 구성원들의 총장선출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총장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 주체들이 현명한 논의를 통해 민주적인 총장선거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보리소

내생엔 거지가 되기를 바라웁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예배 올릴 때, 양족존(兩足尊)이란 말을 사용한다. 양족존은 원래 '두 발 달린 생명체 중 존귀한 분'이란 의미였으나, 한문으로 '족(足)'이란 '구족하다'거나 '갖추다'는 의미도 갖기에 '복덕과 지혜를 모두 갖춘 존귀한 분'이란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부처님에 비견될 수 있는 분으로 아라한과 전륜성왕을 들 수 있다. '대지도론'에 의하면 아라한은 깨달음의 지혜는 이루었지만 복덕은 적고, 전륜성왕은 복덕은 뛰어난지만 깨

달음의 지혜가 없다고 한다. 대승불교인들은 아라한이나 전륜성왕이 아니라 부처님이 될 것을 목표로 삼아 신행할 것을 한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공(空)의 지혜도 추구해야 하지만 아울러 부처님의 복덕을 갖추기 위해 공덕을 쌓으며 살아야 한다.

무명은 부수와 선입은 쌓아야 한다. 부처님의 법신(法身)은 공의 지혜를 체득함으로써 완성되고 화신(化身)은 공덕을 쌓음으로써 완성된다. 3이승기 100겁이라는 상상을

초월한 세월 동안 이렇게 부수고 쌓아가며 보살행을 계속할 때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이승기 동안 공덕을 축적한 보살행자는 마지막 100겁 동안 '몸 만들기'수행에 들어간다. 즉, 32상 80중호라는 대인(大人)의 모습을 갖춘 화신을 완성하기 위한 수행에 전념하게 된다. 무량한 공덕과 대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많은 생명체를 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박에 깨닫는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의 법신은 순간적으로 완성될 수도 있

다. 그러나 부처님의 복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량한 세월이 소요된다. 진정한 보살행자는 보시와 지계 등의 선행을 통해 축적된 복덕을 결코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게 된다. 성불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대승보살도를 지향하는 티베트의 불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발원한다. '내생엔 거지가 되기를 바라웁니다.'

김성철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한·일 관계 심포지움

본교 법과대학(학장=연기영·법학)과 일본 재매대학인 류코쿠대학 법학부가 한·일 학생 합동 심포지움을 오는 13일 오전 10시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21세기 신 한·일 관계의 구축을 향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은 △1부=한·일 역사인식에 대한 현상과 과제 △2부=전후 처리 문제와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다함께 희망을 세울 때입니다

1. 대학 다니는 아들놈만 생각하면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던 우리 부모님. 그런데 얼마전 불어닥친 태풍으로 충북 영동집 논과 밭이 모두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오늘 당장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2. 늦은 밤, 술값 때문에 전화하면 '짜식~'하며 맨발로 뛰어 나오던 내 친구. 한동안 보이지 않아 수소문해 봤더니 수마가 휩쓸고 간 경북 김천 고향집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오늘 전화부터 해 봐야겠습니다.

수재민의 아픔을 함께 하는 동국인이 됩시다.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6~7면 네티즌의 힘



인터넷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한 네티즌. 현재 그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상을 그려본다.

4면 '괘씸' 국회 집중 분석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살펴본다.

11면 아행행의 정체를 밝힌다

신조어 '아행행'이 호응을 얻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비 지원대상 선정
저서 5권·번역서 4권

연구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 연구개발팀이 저서·번역연구비 지원대상 교수를 선정했다.

저서지원대상은 △권기중(불교학)=불교사상사연구 △김낙년(경제학)=일본제국주의하의 조선경제 △김보환(경찰행정학)=범죄생물학, 범죄는 육체적 산물인가 △권은주(불교학)=불교 생명중중 유아교육 프로그램 △최효식(국사학)=한국 항토사 연구(경주편)이다.

번역서 지원대상은 △김상경(법학)=주권론의 뿌리를 찾아서 △차수련(경영학)=국제 마케팅 조사론 △정갑동(영어영문학)=T.S.엘리엇, 베단타 그리고 불교 △서태양(관광경영학)=생태관광론이다.

한가위 귀향단 모집
버스·항공편 19일출발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임형준·중문4)는 올해 추석 귀향버스와 항공편을 이용할 '2002 한가위 귀향단'을 모집한다.

오는 13일까지 모집하는 이번 귀향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중앙도서관 △오후 5시부터 9시=동국관 3층 로비에서 접수받는다.

귀향버스는 부산, 광주 등 38개 노선으로 편도운행하며 오는 19일 9시 대운동장에서 출발한다. 단, 제주도 행 참가자는 오는 18일이나 19일 김포공항에서 왕복 항공기편을 이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임형준 학생복지위원장은 "안전한 귀향길을 위해 각 업체의 운행경력, 사고비율을 따져 차량 업체선정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했다.

정산대 '정보문화축전'
다양한 네트워크 게임

정산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강성규·컴공4)가 오는 11일부터 3일간 정보문화관과 학생회관 앞에서 '정보문화축전'을 개최한다.

주요일정은 △네트워크 게임=11일, 12일 △커피플레이팅 게임=12일 △패미제(노래자랑, 시상 등)=13일에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지난 6일부터 내일(10일)까지 정산대 학생회실에서 받으며 높은 점수를 내는 학생들에게는 3만원 상당의 패밀리 레스토랑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산대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참여를 북돋기 위해 설문 등을 통해 원하는 게임을 경기종목으로 채택했다"며 행사 참여를 당부했다.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논란

일부 직원 '특혜' 문제제기 ... 의견조율 필요

지난 1일 발표된 직원인사발령 명단에는 일반직으로 전환된 세 명의 사무기능직 직원이 포함돼 있다.

사무기능직 직원은 지난 88년까지 '조부'라는 이름으로 선발된 여성직원의 새로운 명칭이다. 하지만 여성직원들이 하는 일이 단순한 업무 보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나 문제가 됐다. 또한 99년 이후 이와 같은 직원채용이 없어짐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무기능직 직원들의 처우 문제가 지적됐다.

직원노조는 지난 95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학교측과 '사무기능직 전환에 관한 보충 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이 협약에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시험을 통해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5년 간 시험 이후 사무기능직 직원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년 간 14명의 사무기능직 직원이 일반직으로 전환했으며 지난해 체결된 새로운 협약에 따라 올해 세 명의 직원이 추가 전환했다. 이로써 현재 남은 사무기능직 직원은 19명이 됐다. 이러한 직원들의 처우문제는 내년 무보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나 문제가 됐다. 또한 99년 이후 이와 같은 직원채용이 없어짐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무기능직 직원들의 처우 문제가 지적됐다.

하지만 이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순탄치만은 않다. 일반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직원노조 강형석 지부장은 "일반직 직원들의 경우 사무기능직 직원에게 일반직 전환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는 의견도 있다"며 "사무기능직과 일반직 대표자들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직 전환 후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인해 학교측도 어려움

을 겪는 실정이다. 현재 학교 각 부서의 정원이 확정돼 있어 일반직 전환자가 부서에 배정되기 위해서는 재단 측에 증원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총무처(처장=황영수)의 한 관계자는 "일반직 전환자가 생길 경우 부서 배치가 어렵고 신규채용도 줄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무기능직 직원들은 일반직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대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직원 내부의 반발과 학교 사정으로 인해 일반직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원내 의견 조율과 부서장원 조정 등의 방안을 통해 사무기능직 직원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필요한 때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더 클래식 ... 새학기를 맞아 신입회원을 모집하는 각 동아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5일 동국대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회원들 역시 불상 앞에서 신입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공연을 진행했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사회학과, 교권위에 항의서한 K교수 관련 공문유출 해명 촉구

조은 교수를 포함한 4명의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5일 교수회 교권위원회(이하 교권위)에 보낸 공문이 외부에 알려진 것에 대해 해명해줄 것을 교권위에 요구했다.

이 공문은 지난 학기 K교수가 자신이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교권위의 개입을 요청하자 교권위가 사회학과의 입장 표명을 요구해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12일

K교수가 조은 교수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하면서 이 내용을 포함시켜 사회학과가 항의서한을 보낸 것이다.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K교수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개입할 수 없다 △교권의 의미를 재고해 봐야 할 것 등이다.

사회학과는 교권위에 다음주까지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예비교사 교양대학 열려 현직교사들과 만남 자리

서울지역 사범대학 학생협의회가 제14회 '예비교사 교양대학'을 본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통일교육 △성교육 △환경교육 △생활지도 등으로 진행되며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회에 걸쳐 열린다. 이와 관련해 오선임(국교4) 사범대 학생회장은 "현직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학생 "연내개원하라"

수업거부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1면에서 이어짐
의과대 학생회(회장=전효섭·분2)는 송석구 총장과의 면담에서 애초 계획대로 12월에 개원할 것을 요구하고, 학교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집단유급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의과대 학생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단계적 수업거부에 돌입한 상태다.

의대 학생들은 현재 △학교 측이 입학당시 불교병원에서 실습시행을 약속 △의과대학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수업거부 등의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면담 후 불교병원을 견학한 의대 김아성(분2) 부학생회장은 "병원시설을 살펴본 결과 애초 의대 학장이 언급했던 기숙사, 실습실 등에서 실재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대 교수들은 오는 11일 학생들의 수업거부에 대한 대책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에 대해 "병원근처 기숙사 건물은 전혀 없었다"며 학교당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불교병원이 개원할 경우 분과 3·4학년 학생들은 2학기부터 10개월간 임상 경주 포함의 분과 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번갈아 가며 실습을 받게 된다. 또한 간호학과 3·4학년 학생들은 학기당 5주 또는 7주씩 임상과 경주 병원에서 수업과 병원 실습을 병행하게 된다. 때문에 학생들은 수련의 기숙사 문제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병원협회 실사 포기 등 사실상 12월 개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대 학생들의 수업거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학교당국은 의대 수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대 교수들은 오는 11일 학생들의 수업거부에 대한 대책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대학부
dmz@dongguk.edu

교수회, 학교 해명요구 답변 "병원 집행 예정액 부채로 파악"

교수회(회장=박종훈·윤리문화학) '학교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학교측이 해명할 것을 요구하자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공문을 통해 성명서의 내용은 지난 4월 학교측이 제시한 '등록금 및 동국대학교 부속 불교

병원 현황보고'를 분석해 추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수회 송일호(경제학) 총무는 "자료는 4월 기준이며 당시 집행 예정액이 현재 부채로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회는 합동 대의원대회를 통해 △총회장 선거 △선관위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학기 등록율 88% 카드납부 전체 8%

2002학년도 2학기 등록율이 지난 6일 현재 약 88%로 집계됐다. 이는 등록대상 인원 1만2천2천여명 중 약 1만600명이 등록한 것이다.

한편, 이번 학기 처음 시행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는 899명이 이용해 전체 등록율의 8%를 차지했다.

또한 등록금 2차 분할납부는 다음달 4일 마감되며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된다.

반성폭력학칙 개정 토론회 상담소·시행세칙 마련 등

총학생회(회장=허고은·중문3)가 반성폭력 학칙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2일 오후 6시 정보문화관 P404에서 개최한다.

현 반성폭력 학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총학생회장이 △학내 성폭력 상담소 필요성 △피해자 중심 사건 해결을 위한 시행세칙 마련 등에 대해 발제한 후 토론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허고은 총학생회장은 "학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전무대

이중대출

○...요즘 도서관 2층 자료실 대출코너는 부쩍 많아진 학생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룬다는데.

알아보니 시범운영 중인 무인 도서대출기의 오류가 잦아 이를 문의하는 학생들이 줄을 선 것이라고.

시범운영을 위해 사람을 통한 대출은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잦아 학생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새로운 대출 시스템, 기계와 접촉한 후 사람을 만나라(!)"

이사철

○...동약에 때어난 이사바람이 불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데.

수강정정 후 늘어난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강의실 배정으로 인해 일부 교수들이 강의실을 알아보러 다녀야 했기 때문이라고.

이는 사전에 수강정정으로 생긴 변화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해 수업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이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강의실 변경,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일석이조

○...요즘 도서관에서 도서를 반납할 때에는 줄을 잘 꼴라 서야 한다는데.

이유인즉 책을 반납하는 장소에서 일부 학생들이 자신들의 전공서적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때로는 줄이 두 개로 늘어나 도서를 반납하려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도서반납 속도를 늦추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한 번의 방문으로 대출과 반납을 동시에 한다(!)"

블랙홀

○...지난주 동국관 식당 창가 옆 테이블의 밑자리를 보고 달려간 학생들은 문상이 되어 발길을 돌려야 했다는데.

알아보니 난방관 교체 공사로 인해 맨홀을 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인내 표지판이 없어 헛걸음을 한 것이라고.

공사시설을 모르고 빈 좌석만을 보고 간 학생들은 갑자기 나타난 맨홀에 당황스러워 했다는데.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동국관 식당에 새로 도입된 좌석 예약제."

2002학년도 수해장학금 신청 안내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당한 수재민 자녀에 대한 학비감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수해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 선발대상**
가. 최근 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의 자녀 중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녀. 보호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이 15만원 이하인 자녀.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자(타 장학수혜자 제외)
- 지급금액** : 등록금의 일부(신청인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선발인원** : 00명(심사 후 적격자에 한함)
- 신청기간** : 2002. 9. 12(목) ~ 9. 17(화)
- 신청장소** : 해당 단과대학 교학과
- 제출서류**
가. 풍수해피해 사실확인서(수해지역 읍/면/동사무소장 발급) 나. 보호자 및 본인 주민등록 등본 다. 재산세 과세증명서

학 생 처

실전 모의면접 대상자 모집

2003년 2월 취업예정자들의 취업 활성화와 준비를 위하여 【직업탐구Ⅱ】 수업 6주【실전모의면접】을 10월 4일(금) 개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의면접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일시** : 2002. 9. 16(월) ~ 9. 25(수)

2. **모집지역**
- 직업탐구 수강자 중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미 수강자도 가능)
- 취업예정자

3. **모집인원** : 16명 (남, 여)
- 개별면접 : 2명
- 집단면접 : 12명 (2개조 6명씩)
- 프리젠테이션 : 2명 (사전에 주제 알려드림)

4. **접수처** : 본관 학생처 취업지원팀 (☎ 2260-3054)

※ 면접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학 생 처

실전 모의면접 개최

취업예정자들의 취업활성화와 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02년도 실전 모의면접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1. **일시** : 2002. 10. 4(금) 15:00~17:00

2. **장소** : 중강당(본관)

3. **면접관**

성명	근무처	직위	비고
최형준	(주)삼성생명	인사차장	
이응걸	롯데그룹(롯데제과)	인사부장	
이한영	SK그룹	인사부장	
남경현	(주)엘리트코리아	부사장	

- 실전모의 면접을 통하여 면접능력의 배가
- 서류전형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의 채점기준 및 작성법

5. **면접형태** : 개별면접, 집단면접, 프리젠테이션, 집단토의면접 후 단계별 강령 실시

6. **주최** : 학생처 취업지원팀 (☎2260-3054 ~5)

학 생 처

대선 앞둔 진보진영 움직임 분석

범추 '일시 정지' 인가 '완전 멈춤' 인가

각 단체 이해관계 엇갈려 구성 못해 ... 논의 재개 여부 불투명

올해는 진보세력이 단일후보를 선출해 대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껏 각종 선거에 공동대응을 하지 못하고 분열돼 왔던 진보진영은 올해만큼은 공동행보를 위해 선거를 준비한다는 목표로 진보세력 결집을 위한 작업을 추진해왔다.

진보진영 단일후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 7월 16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10여개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진행된 회의에서였다. 이들은 이날 '2002 대선승리와 범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범국민추진기구(이하 범추)'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예비경선을 통한 단일후보 선출 △사회당, 녹색평화당 및 각종 단체의 참여 권유 등을 결정했다.

답보 상태 놓인 범추

하지만 범추는 출범 이후 오랫동안 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열린 회의에서는 각 조직의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범추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범추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해 앞으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을 남겼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범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예비경선 방식 등을 놓고 참가 단체들 간에 입장이 엇갈린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26일 예비경선

이전에 당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국연합은 "다른 단체 후보의 참여가 제한되고 민주당에서 선출한 후보와 맞서게 되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으며, 전능 역시 민주당 방침이 범추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하고 범추 참가유보 결정을 내렸다.

논의가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무르자 진보진영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일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국연합 등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사회당 역시 이념과 노선이 다른데 원칙없이 범추에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단체 관계자들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단일후보 선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회의를 접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국연합 박세길 편집위원장은 "각 조직들이 현재 내부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만간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 변수 주목

지난 8일 권영길 대표를 후보로 선출한 후 본격적인 대선준비에 접어든 민주당은 '한국노총' 변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선을 맞아 독자정당을 창당할 계획인 한국노총이 민주당과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

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채진원 정책국장은 "민주당이 한국노총과 합당하게 될 경우 양대 노총의 지지를 받는 명실상부한 노동자 정당으로 거듭나게 돼 다른 진보세력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사회당은 독자 후보로

반면 사회당은 독자 행보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회당은 범추와는 별개로 '법사회주의 후보' 출마를 추진하고 있으며, 늦어도 10월 말까지 대선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는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가 사회당과의 연대보다는 범추 참여나

독자 후보 출마를 더 중시하고 있는 입장이라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학생운동 단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한총련은 그간 진보정당 지지와 이회창 후보 낙선을 주요 과제로 삼았지만 사실상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서총련이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 대신 '당선가능한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수정안은 진보정당 지지에 좀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3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중양당사 이전 개소식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당(왼쪽)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민주노동당(오른쪽).

사설

이사회에 실질적 대책을 요구한다

불교병원 개원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사회의 정족수 미달로 정관이 개정되지 않아 계획되었던 연내 개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본교가 입게될 대내외적 손실은 그야말로 엄청나다. 우선, 지하 2층 지상 12층의 대규모 병원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월 유지비만 해도 몇 억씩 든다고 하니 앞으로 투입되어야 할 비용만도 어마어마한 셈이다. 대외적 이미지 실추 또한 그에 못지 않다. 이미 올해 12월 개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데다 3개월째 발표만을 기다리던 직원채용 응시자 500여 명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러 개원도 하기 전에 불신부터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오늘로 9일째에 접어든 의과대 학생들의 수업거부투쟁 역시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까지 치달은 것에는 학교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98년 기공식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자료공개 요구에도 독단적 건립추진으로 학내 구성원과 종단, 재단의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관계정이 있기도 전에 의료원장을 선임한 것이나,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재정을 구입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병원건립 불사를 재검토하겠다는 현 이사회의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사회가 불교병원이 건립되는 동안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식을 눈앞에 둔 지금에서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혹여라도 그 이유가 지난 5일자 한 교계주간지의 사설에서 밝힌 대로 불교병원이 단순히 개원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종단과 법인과 학교간 권력구조의 지각변동을 전제한 힘 겨루기 또는 이해타산이나 상층부간의 소송적인 독선에 따른 갈등과 불화의 여진"이라면 결단코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감사는 동국학원의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자명한 이치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사회의 행태는 동국학원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이라는 점에서 이사회가 비판한 학교당국의 일방적 건립추진과 다를 바 없다. 이사회는 불교병원의 위기가 곧 동국학원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동국학원의 발전을 위해 좀더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기획만평,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권보호 논리 뒤의 정치적 계산

잇따르는 탈북자 기획 만평 ... 정치단체 개입설도

최근 탈북자들이 중국 내 외교공관에 집단으로 진입하는 일이 잦아지자 탈북자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탈북자의 북측 송환원칙을 고수해온 중국이 이들의 집단만평이 확산되는 것 또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특히 지난달 말 탈북자 11명이 외교청에 진입한 후 탈북자들의 외교공관 집단진입이 반복된 것을 기획만평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만평이란 북측인권을 다루는 비정부기구의 조직적인 도움을 통한 만평이다. 올해 초부터 그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며칠 전 중국공안인 기획만평 연루가능성 때문에 조선일보 지국

을 한밤중에 강제 수색한 것도 이들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중국정부가 탈북자의 만평, 특히 기획만평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북측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과 이북은 이미 탈북자 송환원칙에 관한 협약을 맺은 상태인 데다가 근본적으로 같은 사회주의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유대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기획만평에 이북체제붕괴를 가속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면 중국으로서 이를 꼭 북측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획만평을 오랫동안 지원해온 NED라는 비정부기구가 각 국에

서 반미정권 붕괴에 깊게 개입해왔다는 사실은 기획만평의 '정치성'을 의심해 볼만한 여지를 남긴다. 본고 이철기(국제관계학) 교수는 "기획만평을 지원한 단체들을 잘 들여다보면 남북관계진전을 방해해온 단체들이 많다"며 "겉으로는 보편적인 인권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이북 체제의 모순을 극대화시켜 보여주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입장에서 기획만평은 미국과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획만평을 지원해온 미국 비정부기구들은 NED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등 실제로 '비정부' 기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과 북측의 내장간섭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미국은 지난 4일 처음으로 탈북자에게 미국 망명지위를 부여해 앞으로 더욱 '당당하게' 탈북인 인권문제를 논할 수 있게 됐다. 인권문제로 중국이나 북측을 압박하기가 더욱 쉬워진 셈이다.

이처럼 기획만평은 어느 곳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홀로그래프도 같다. 특히 우리정부의 경우 탈북자의 보편적인 인권문제와,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입장정리가 쉽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때 "탈북자가 많아지기를 원하는지, 줄어들기를 원하는지 먼저 생각해볼라"는 상대 서동만 교수의 말은 홀로그래프의 그림을 두 개로 해체시켜 보여준다. 이는 곧 이북체제 붕괴를 원하는가의 질문으로 바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획만평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북관 및 남북 관계의 문제로 돌아오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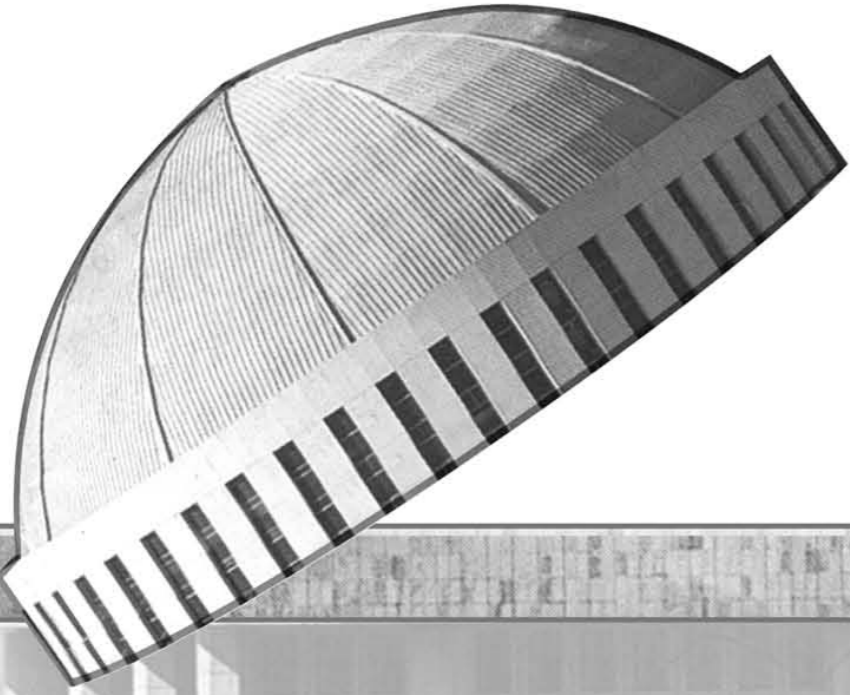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유현우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장	장영길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국장	류변성		
편집장	손상민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7가 26 경주캠퍼스 (우)170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8-1270 전화 (054)770-2358 팩스 (054)770-2057

국회뚜껑 열어보니 “뚜껑 열리네”



입법, 재정 등 중요한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 국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국회에 냉소를 보낼 뿐 감시하는 데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이에 지난 2일 열린 정기국회를 직접 찾아 국회의 모습을 살피고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에게 현재 국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지금 우리 국회에 찬사를 보낼 이가 얼마나 있을까. 초등학교 생부터 노인까지 국회에 보내는 냉소는 거의 전 국민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중에서도 대선을 앞둔 국회는 한심한 정도가 다른 국회에 비해 특히 심한 것이지. 얼마전에는 “제발 싸움에만 몰두하지 말아달라”는 호소성 사실이 각 일간지에 일제히 실리기도 했다.

한편 본교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국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모의국회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이들 중 오원기(정의3), 김홍규(정의2), 차경운(사과대1) 군과 함께 제234회 국회를 찾았다. 모의국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실제 국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였다. “국회건물은 참 이상해.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당신들의 ‘열린 국회’

국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청 면회소에서 국회의원의 추천도장이 찍힌 방청권을 배부 받아야 했다. 자연스럽게 본청 정문을 통과하려면 이들은 첫 번째 황당한 경험을 했다. 정문 근처에만 가도 수위가 뛰어나와 웅건과 신본

을 물어보며 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알아보니 국회 대부분의 건물에서 일반인은 면회소가 직접 연결된 지하 출입문으로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긴 수위아저씨들까지 국회의원 같이!”라는 김 군의 말에 모두들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하출입문 조차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몸수색은 물론, 가방수색, 신분증 검사 등 까다로운 절차가 이어졌다. 결국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기까지 가방과 핸드폰, 수첩까지 모든 소지품을 보관소에 맡겨야 했다. “손가락질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이분, 졸리면 나가서 잠 깨고 오세요.”

본 회의장에서는 이미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서로 자신이 알고 있는 정치인들을 찾아라 정신이 없었지만 국회 방청석은 말 그대로 ‘뜬 자리’. 다른 행동은 거의 할 수가 없었다. 손으로 의원들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하다가 손가락질한다고 야단맞거나, 긴 인선을 들으면서 눈을 감을라치면 졸음 깨고 오라고 지적 받기 일쑤였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은 맨날 자던데...” 김 군이 한마디했지만 관리인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목록 부답이었다.

이날 국회는 개회식을 마친 뒤 바로 본회의를 시작했지만 바로 정회되고 말았다. 이날 오전까지 여야 간에 합의하기로 했던 공적자금 안건을 합의하지 못해 본회의의 개이 안건을 처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합의에 회의시간 중 일부를 빼어준 셈이 되었다.

“이건 내가 고등학교 때 꿈꿨던 삶이네. 10분 공부하고 50분 쉬는 시간 갖기!” 방청석에 앉은지 약 20여분만에 정회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국회 휴게실에 앉아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사실 공적자금 조사가 9월 국회의 핵심쟁점이 될 것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다. 이미 여야간 합의가 된 데다 병역비리로 상처를 입은 한나라당이 확실치 설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공적자금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자신의 ‘공격’과 ‘수비’를 위해 열심히 머리를 짜낼 것이 분명했다. 이날 공적자금 조사 대상을 놓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이날 정회는 2시간여 만에 끝나 그날 안건은 모두 통과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파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하루가 흘러버렸다면 다른 안건들은 뒤로 밀려 국회가 정쟁에 휘말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본 회의가 끝난 뒤 모든 일정을 마친 정의과 학생들은 소지품을 찾아 일반인용 지하출입문을 향해 내려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방청한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우)과 회의중인 국회의원들(좌).

“첫 국회 방청이었는데도 별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도움은 된 것 같다.”

이날 국회를 방청한 정의과 학생들의 짧은 소감이었다. 사람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자신을 향한 주위의 ‘기대치’가 전혀 없을 때, 즉 주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체념해버렸을 때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국회와 국회의원에 얼마만큼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일까. 대선을 앞둔 지금, 혹시 체념해서는 안될 것을 체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지도 모른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전문가에게 듣는다

국회, 이렇게 바꾸자

‘비효율의 대명사’인 국회가 능률적인 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까. 현행 국회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비슷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신보다는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 현행 국회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방안들을 살펴본다.

유관진(본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자유투표제(크로스 보팅)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달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 자유투표는 바람직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속 국회의원이 당론에 배치되는 의견을 내더라도 징계를 내릴 수 없도록 관련 당 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

순핵제(참여연대 운영위원장)=잘 운용하고 있지 못할 뿐 법, 제도는 잘 갖춰진 편이다. 다만 별치제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국회가 공전되면 공전된 만큼 국회보조금을 줄인다거나 회비를 줄이는 등 벌칙을 정해놓는 것이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결함이 확연히 드러났는데도 법망을 교묘히 벗어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조기숙(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정당 개혁이 관건이다. 총재직을 폐지해 권력을 분산시키고 선거보로커들이 아닌, 건전한 당원들

을 뽑아 민주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당원들이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이 당 후보를 뽑는,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체계 말이다. 그래야 뒷사람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가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이 문제도 정당을 개혁해야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은 당 총재였기 때문에 출신 당의 권한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당 총재시절부터 권력을 분산시켜 놓으면 대통령이 된 후 소속당 국회의원들이 견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대통령 눈치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호광석(정치학 박사)=국회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 당내에 교섭단체를 여러 개 두었으면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 교섭단체는 20명 미만 구성할 수 있지만 한 개의 당에 한 개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당내 교섭단체를 여러 개 둔다면 국회의원들이 예전보다 자신의 소신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고, 사안마다 정당 대 정당의 구조로 치달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 국회는 본 회의에 의존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여 논의를 벌이면 비생산적인 ‘싸움터’가 된다. 본 회의는 기본적인 과정만 담당하고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상임위가 맡아야 한다. 소수의 여야 의원들이 분야별로 모이므로 더욱 생산적인 논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추미애 의원과 함께한 국회이야기

“정쟁보다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국회를 방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추천해 줄 국회의원을 섭외하는 일이다. 국회 방청은 현직 국회의원의 추천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본회의가 끝난 후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자신을 추천해 준 추미애 의원을 만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생들과 추 의원은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의국회와 바람직한 국회 구조, 이번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하 학생)=모의국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된다.

추미애 의원(이하 추미애)=한국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모의국회에 담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국 국회는 구조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정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 국회를 묘사하는 방향으로 모의국회를 진행한다면 다소 풍자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학생=지난해 열린 모의국회 때도 한나라당을 ‘두 나라당’이라는 식으로 바꿔 부르는 등 기성 정치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주된 내용이 됐다.

추미애=그렇게 한국 국회를 풍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재미는 있지만 끝나고 난 후에 답답하고 씁쓸한 느낌이 남을 것이다.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영국, 미국의 국회시스템으로 모의국회를 꾸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재미는 조금 없더라도 ‘의회주의의 모범 답안은 이런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학생=영국, 미국 식 국회의 어떤 면이 ‘의회주의의 모범’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추미애=미국 국회는 우리나라처럼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가 자주 열려 법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며 치열한 토론의 결과물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진다. 우리와는 달리 입법의 주도권을 국회가 갖고 있다. ‘싸움하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학생=대선을 앞둔 9월 국회가 정쟁으로 혼탁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는데.

추미애=이번 국회는 지난 97년 말 국회보다 대선에 이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변함없이 원내 제1당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당시에 비해 국회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이 더욱 커진 반면 민주당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당시에 비해 훨씬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정권 창출을 위해 국회를 대선용 정쟁에 이용할 경우 이에 제동을 걸어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정리=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추미애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정의과 학생들.

뛰다 놓은 보리자루 민생법안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극한 정쟁 속에 민생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분위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일용근로자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성희롱 예방 조치를 강화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은 국회 한편에서 먼지만 쌓인 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이 시급히 제정을 요구하는 민생법안들에 대해 알아본다.

돈세탁방지법

정치구조를 왜곡하는 검은 돈을 물러내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9월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현행 돈세탁방지법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각종 계이트에서 로비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돈세탁이 술하게 이루어졌는데도 이를 하나도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올 7월 임시국회 때 현행 돈세탁방지법안을 대폭 수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기관 직원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해외거래 뿐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계좌추적권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자제한법

최근 급증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5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가 연말에는 3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파산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대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돌려막기’를 시도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신용불량자 양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부업법’을 제정했지만, 이 법은 최고 90% 이자를 허용하기 때문에 고리사채업자를 단속은커녕 인정해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이선금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엄청난 폭리를 보장해주는 대부업법 대신 이자의 최고한도를 40% 정도로 정하는 이자제한법을 마련해 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동약로 눈 가리고 아웅



“이 강의는 일주일에 한 번 세시간 수업을 하겠습니까.”
“어? 시간표에는 한 시간 반씩 두번 한다고 표시돼있는데...”
수강신청 후 첫 수업에 들어간 한 학생은 담당 교수의 ‘일방적 통보’에 당황해 한다.
“연강하면 다른 강의랑 중복되는데...”
“정정기간도 끝났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
정정기간이 끝난 후 연강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몇몇 학생은 강의시간이 중복돼 한 과목을 받

시 취소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보통의 경우 강의시간이 변경되면 정정기간에 알 수 있지만 이번에는 학교계산사나 강의계획서 등을 통해 전혀 알려지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컸다.
현재 담당교수가 강의시간을 변경할 때는 교과과에 ‘수업시간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후 교과과는 변경시간을 수강신청 프로그램에 입력해 정정기간에 학생들이 변경된 시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방학동안 시간이 바뀐 과목에 대해서는 정정기간에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번에는 담당교수가 방학 때 강의시간 조정을 요청하는 바람에 변경신청서 제출기간을 놓쳤다. 이에 해당학과는 교과과에 시간이 바뀐 것을 알리지 못하고 임의로 시간을 변경했다. 결국 학생들은 실제로 강의시간이 변경됐음에도 변경된 시간이 수강신청 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수강신청 기간도 끝났고... 한 과목은 포기해야겠다”

결국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은 자신이 계획했던 학업을 이수하지 못한 채 이번 학기를 맞게 됐다. 수강신청은 강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첫 단계이다. 이 때에 학생들의 수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강의 정보이다. 따라서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강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교수들의 준비 부족이나 행정상의 이유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족통일을 위한 전제는 ‘역사통일’

각자의 역사에 대한 과장된 미화와 경직된 의식의 벽 허물어야

우리 민족의 분단은 남북의 정치체제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 습관에서 역사의식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양분시켰다. 이러한 반세기간의 이질화 현상은 과거 삼국시대 700여 년 간 분열보다도 더 심각한 민족동질성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북 역사학 동향 및 그 문제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민족의 정신적 바탕이 되는 역사의 통일은 정치적 통일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남북 역사인식 차이를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북 역사학의 특징

이북 역사학은 첫째로 ‘정치의 시녀’로써 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한 위대한 수렴을 뒷받침한다. 물론 이러한 정치와 역사의 관련은 지난번 고교국사 교과서 서술에서 보듯이 우리도 문제가 있음은 사실이지만, 이북이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으로써 국민통합의 요체로 설명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둘째로 이북 역사학은 투쟁사관을 특징으로 한

다. 때문에 이남에서 말하는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가 이북에서는 역사 창조 주역이 되며, 그를 진압한 인물은 언제나 반동이 된다. 이북은 자연의 구속으로부터의 투쟁(선사), 사회적 구속으로부터의 투쟁(고대·중세), 민족독립을 위한 투쟁(근대),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현대)으로 역사전개를 설명한다. 물론 투쟁이 역사발전의 요인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평화와 공존의 시기도 있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셋째로 이북의 역사학은 한국사의 정통성을 이북에 두었으므로 ‘고조선-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의 계승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B.C. 2993년에 단군 조선이 건국되었고, B.C. 277년에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웠으며, 그 문화적 배경으로 ‘세계 5대 문명권(대동강 문화와 기존의 4대 문명)’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고구려의 통일외지는 신라에 의해서 좌절되었으므로 통일신라라는 명칭이 없고, 살수대첩의 살수는 요동반도에 있는 소자하가 된다.

넷째로 이북의 역사학은 현대사 서술에 중점을 두어 ‘조선전사’ 33권 중 현대편이 18권이나 된

다. 특히 현대사의 기점을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1926년으로 잡고 있어, 1945년으로 잡고 있는 이남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대사 기점은 역사전개의 자율성 내지는 타율성 문제와 결부되어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북의 역사학은 과거사실을 오늘의 잣대로 해석하는 소위 연역적(deductive)방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남의 역사서술에서 제외되는 일반대중의 삶의 모습, 예컨대 언어의 변화, 농사기구, 그리고 간장과 메주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분단사학 극복 필요

이제 우리는 과거 신라의 통일에 2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했던 것처럼, 진정한 민족통일을 위한 전제로써 역사의 통일이 필요하다. 남북간 정치·경제적 교류와 함께 역사학의 교류가 절실한 것이다. 그것은 민족 동질성 회복의 바탕이 역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찬란한 고대문화로써 고구려문화와 신라문화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며, 당당했던 발해사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조상이 남긴 공동의 유산을 함께 연구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를 위한 학문적 교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종래 남북 역사학계의 교류가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음을 보았다. 이는 각기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과장된 미화와 경직된 의식의 벽을 허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상대방의 역사인식을 자신의 잣대로 해석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이해가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를 얽매게 한 이데올로기의 틀을 벗어나, 단일민족의 핏줄과 정통을 복원하는데 노력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진정한 민족의 통일은 정치통일이 아니라 역사통일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 분단사학의 극복을 위한 상호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신형식
이화여자 대학교 교수



유지나교수의 한국영화사 (2)

최초의 영화들과 의혹, 아이러니

초기 한국영화사 연구에서 제기된 두 가지 논쟁은 최초의 영화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 논쟁은 서구 근대문화로 이 땅에 소개된 최초의 영화는 언제이며 어떤 것이었나를 두고 벌어지는 갑론을박이고, 두 번째 논쟁은 최초로 한국인이 만든 영화는 언제이며 어떤 것인가로 집약된다.

우선 최초의 영화도래에 관한 주장은 1897년 남대문동 중국인 창고에서 담배선전용으로 영국인 이스트 하우스가 개최한 시사회부터 ‘황성신문’ 1903년 6월 23일자 기사에 근거한 동대문 전기회사의 전차산업 선전 상영회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설이 있다. 심지어 미국인 여행가의 회고담에 근거해서 1899년 왕실에서 미국인 여행가가 시사회를 가진 것을 최초의 영화도래로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황성신문광고에 근거한 1903년의 상영회이다. 세계적으로 최초의 영화 기점을 잡은 기준이 영화의 대중공개성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 논쟁에서 흥미로운 것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 이 땅에 불어닥친 서구 제국주의와 중국, 일본 상업 자본의 영향력이다. 대체로 최초의 상영회들은 영미 연초회사 담배홍보용이었고, 주관자가 영국인이거나 일본인으로 되어있고 장소는 동대문이나 남대문 충무로 등의 창고로 모아진다. 입장료는 10개, 입장객은 10개 정도를 모아 가져가면 됐는데, 그건 지금의 경품모이먼트와 유사하다. 이런 사실은 영화를 단순한 서구 근대문화로만 보고 넘어가기보다는 애초부터 서구열강의 상품선전용으로 이용되었고, 장소도 버젓한 공연장보다 기계창고 같은 누추한 곳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영화의 위상을 보여준다.

최초 한국영화 논쟁은 이보다 더 뜨겁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최초 한국영화는 김도산이 찍은 연쇄극(연극중간에 삽입된 키노드라마인) 1919년의 ‘의리적 구토’로 통용되었다. 그러나 온전한 영화가 아니라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보다 온전한 영화인 1923년의 ‘월하의 맹서’나 ‘국경’을 최초의 영화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두 편 모두 식민지 상황에서의 한국영화란 점에서 또다른 의혹을 제기한다. 윤백남이 연출한 ‘월하의 맹서’는 조선총독부가 저축장려를 위해 만든 홍보용 영화로 공공기관에서 상영한 프로파간다 영화이다. 그보다 조금 앞서 제작된 ‘국경’(김도산 연출)은 일제의 검열시비에 걸려 온전한 대중상영을 달성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사를 발달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경’을 한국영화의 효시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최근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아이러니는 이 두 편의 영화와 같은 해인 1923년 일본인 제작에 하야가와가 연출한 우리 고전작인 ‘춘향전’에 미남변사 김조성과 기생출신 한룡을 등장시켜 흥행대성공을 거두어 일본에까지 수출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고전영화제작붐이 일기도 했다. 식민치하의 조선인은 일본정부 홍보영화나 액션영화를 만들고 일본인이 한국고전을 만들었다는 점은 한국 영화사의 쓸쓸한 아이러니이다.

21세기 지식인 사전

컴퓨터학자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

“이는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정보는 재산이 아니라 공기와 같은 것이다.”

‘정보 사회주의자’ ‘정보 아나키스트’라고 불리는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50)은 정보의 사유화와 독점화를 반대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의 선두주자다.

1953년 미국 맨퍼튼에서 태어난 스톨먼은 하버드대학 물리학과에 진학하지만 컴퓨터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71년 MIT대학 컴퓨터공학과로 진로를 바꾼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곳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그가 설립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스톨먼의 카피레프트 운동은 크게 ‘GNU(Gnu is Not Unix) 선언’ ‘리눅스’ ‘그놈(Gnome) 프로젝트’로 대변된다. GNU 선언은 AT&T가 개발한 운영체제인 ‘유닉스’의 유료화에 대한 대항의 뜻이며 이와 함께 스톨먼은 85년 무료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인 ‘이맥스’를 개발했다.

또한 스톨먼은 정보독점으로 대표되는 마이크로소프트(MS)에 맞선 리눅스 컴퓨터운영체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MS에 대응한 ‘그놈 재단’에 참여, 리눅스용 그래픽 인터페이스 ‘그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PC 사용환경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내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자아 분리로 나타나는 다중인격, 해리성 정체 장애

“당신은 지금 헬리입니까? 헬리나입니까?”

재판관이 증인에게 묻는다. 분명히 헬리인 증인은 밤에는 시와 그림을 좋아하는 대인공포증 환자 헬리로, 낮에는 사람 만나는 것과 일을 좋아하는 헬리나로 살아가고 있다. 어렸을 적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던 헬리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대담한 헬리나로 변하게 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는 미국 TV 법률 드라마 시리즈 ‘엘리의 사랑만들기’의 한 장면이다. 드라마에서 ‘해리성 정체 장애’로 판정 받은 헬리는 증인석에 앉아 헬리와 헬리나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흔히 다중인격장애라고 말하는 ‘해리성 정체 장애’는 자기 안에 또다른 자신이 있게 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평상시 자신의 성격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됨에 따라 괴로워하는 증상이다.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어린 시절 성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 경험 때문이다. 특히 피압시성이 높은 사람이 어려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무의식중에



해리성 정체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들. 왼쪽부터 시스코, 세션나인, 지킬박사와 하이드



자기회면을 걸어 자아를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정신적 고통을 회피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리성 정체 장애가 나타난다.

때문에 해리성 정체 장애는 정말로 한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한 사람 내부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정신 상태의 일부분들이 일시적으로 그 사람 전체를 조종하는 것일 뿐이다.

해리성 정체 장애는 흔치 않고 흥미롭게

보이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환자에게 이 증상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흥미롭지만은 않다. 만약 내가 어제 또다른 나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해리성 정체 장애를 다르게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Netizen

세상을 움직이는 온라인 속 시민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한 네티즌. 특히 인터넷 망 보급률이 여느 나라보다 높은 한국사회에서 네티즌의 힘은 정치, 사회, 문화 등 그 분야를 막론하고 발휘되고 있다.

또한 주로 젊은 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이러한 네티즌의 특성은 본교도 예외가 아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각종 건의사항은 본교의 미흡한 시설과 비합리적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사 기획부는 넓게는 우리사회의 네티즌, 좁게는 본교의 네티즌 파워를 진단해 보고 미래의 바람직한 상을 그려본다.

편집자

개개인 스스로가 사회적 담론의 주체임을 인식 인터넷 상에서의 기본예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착시켜야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다. 하루라도 '그냥 지나칠 날'이 없으며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입, 아니 손바닥에 가시가 돋는다.

인터넷이 일상화된 요즘 사이버 공간이 조용한 날은, 네티즌이 그 공간을 그냥 지나치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다시 말해 현대인이 인터넷을 통한 사회 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은 입 안에 가시가 돋는 일처럼 드문 일이다. 그만큼 우리는 현실 뿐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네티즌으로 하여금 어떤 문제나 사건에 관여해 열띤 공방전을 벌이게 하는 것일까. 또한 어떻게 하나의 사건 혹은 문제가 급속도로 전 사회 구성원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일까. 아마 이러한 물음의 공통된 답은 바로 '네티즌의 힘'일 것이다.

'통신망을 통해 문화를 만들고 공동체를 꾸려나간다는 의미의 합축적 개념.' 시민(citizen)과 통신망(network)의 합성어를 처음 사용한 하우번(Hauben)은 네티즌을 이렇게 정의했다. 즉, 네티즌은 단순히 통신망을 사용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통신망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공동체적 관점을 지닌 또다른 '사회인'인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네티즌의 활동을 그들이 속한 사회와 분리해 설명할 수 없다. 네티즌이 사이버 상에서 교환, 공유하는 이야기는 사회에서 이슈화 되는 사건이나 문화 현상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네티즌이 더욱 쉽고 빠르게 그들의 생각을 교환하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결국, 네티즌에 의해 주도되는 일련의 사회적 관계나 행동들은 사회 현상의 일부인 동시에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여론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언론 매체나 기업에서 '네티즌이 만들어 가는 세상'이라며 네티즌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것이 그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이처럼 네티즌이 사회를 움직이는 세력으로 여겨지게 된 배경은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사이버 공간이 지닌 특성에 기인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확대된 초고속통신망은 네티즌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그에 따라 네티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망 보급률이 여느 나라보다 높은 한국사회에서 네티즌의 힘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분야를 막론하고 발휘되고 있다.

또한 시·공간적 제약이 없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은 네티즌 간의 빠른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가능하게 했다. 사회현상에 대한 의견이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주장하는 네티즌 개인의 의견은 눈감ப்பட 사이어 확산돼 여론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여론은 오프라인으로 확대돼 직접 사회 흐름을 주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네티즌이 항상 긍정적인 면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크게 이슈화 된 사건이 몇 일 사이에 자취를 감춰버리는 등 여론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산발적이거나 단발적인 경우도 많다. 또한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인터넷 공간에서 책임의식 없는 무절제한 행동을 보일 때도 있다.

네티즌의 이런 면모는 사회를 움직이는 진보적 여론 세력으로 기대되는 네티즌의 긍정적 측면에 발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네티즌이 진정한 익명성의 자유를 누리면서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네티즌 스스로가 사회적 담론의 주체이자 변혁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의 기본적 예절에 대한 네티즌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백 V S 흑

인터넷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온라인상의 '개인'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집단'보다 큰 위력을 갖는다. 또한 여기에서 형성된 여론은 사회 문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 우리는 네티즌을 사회 변혁세력이라 부르기도 한다. 만인이 평등하다는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의 활약을 살펴보자.

통해 형성된 여론이 총리서리 인준을 부결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만큼 네티즌은 정치나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소리바다 논쟁

검찰이 소리바다에 대해 서버 폐쇄조치를 내리자 소리바다측을 옹호하는 네티즌이 거세게 반발하며 검찰과 음반협회의 처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정보공유'를 주장하는 네티즌과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음반업계 간의 마찰로 인해 각종 게시판에 소리바다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네티즌은 인터넷 공간의 기본개념인 정보공유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서명운동과 음반 불매운동 등을 벌이면서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업계의 고소를 취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성금운동

최근 태풍 '루사'가 많은 피해를 남기고 지나간 후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네티즌이 발벗고 나섰다.

많은 네티즌이 온라인 상에서 '수재민을 돕자'는 의견을 여기저기 게시했고 이에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은 이 달 말까지 수재민을 돕자며 '1004들의 릴레이 메시지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어 여러 포털 사이트들도 수재민 돕기에 동참해 인터넷에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다.

사막한 공간이라고 인식됐던 인터넷이 네티즌의 온정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서로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이다.

(석)
kauri21@dongguk.edu

인터넷 바다에 내려진 적조경보

힘과 권력은 잘못 사용될 경우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마찬가지로 네티즌의 힘이 거대해 지면서 그들의 움직임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하며 과도한 폭력성을 보이는가 하면 거침없는 인신공격을 가하기도 한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터넷 예절, 네티켓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사이트 공격에서 보이는 네티즌의 전체주의적 성격은 인터넷 시대에 대한 무조건적 낙관을 향한 경고"라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익명이 보장되는 만큼 네티즌은 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각종 연예인 안티 사이트에서는 무차별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는가 하면 보기도도 섬뜩한 조작 사진 등이 올라와 있다.

최근에도 영화배우 박신양씨의 결혼 상대자로 알려진 백혜진양의 과거 사생활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폭로되고, 비방하는 글들이 폭주해 물의를 빚었다.

이러한 네티즌들의 집단적 인신공격은 한 개인의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위협적이다.

거짓말 천국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죄의식 없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D' 사이트에 접속해 "현 대통령은 북한인 고정갑첩이며 광주사태를 배후조종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한 회사원이 서울직검 컴퓨터 수사부에 구속됐다. 또 사업가 김모씨는 모 방송국 간부를 만나 가수인 자신의 딸을 출연시켜 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방송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당 간부가 출연을 미끼로 돈을 받는다는 글을 게재했다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무머는 그 전파력이 상당한 만큼 개인이 입는 피해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민주시민 그 이상의 자유를 가진 네티즌

'온라인 한국'에 대한 규제 딜레마 ... 완전한 감시·통제 불가능

생음악보다 웨이브로 편집된 음악을 더 즐겨듣고, 피와 살을 가진 얼굴보다는 아바타와 더 친지하게 대화하며, 백화점을 가기보다는 사이버 쇼핑장에서 가상구매를 즐기는 네티즌. 이 세상의 모든 컴퓨터가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되면서 거대한 '온라인 엘도라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비사회적 거주지를 가상 공동체(virtual community)라 부른다. 그곳에선 생각하는 법, 대화하는 법, 물건을 사고 파는 법,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법과 죽는 법을 달리한다. 현실 공간의 비자립적 주체들로선 이러한 신세계의 신인류는 낯설지만 하다.

가상 공동체라는 물리적 공간의 주민인 '네티즌'의 삶은 실제적 공동체의 삶이 끝나는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 여기'의 삶이다.

왜냐하면 두 개의 공동체는 동일한 생산양식에 기초한 동일한 삶의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규범의 지배를 받는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거주하는 네티즌은 그동안의 기술적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동시에 이곳을 초월할 수 있다. 민주 시민의 핵심적인 권리가 '자유'라고 한다면, 가상 공동체는 명백히 자유의 확대이고, 네티즌은 시민보다 더 자유롭다.

시민 정부에서 자유란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아니라 정부의 강제, 금지, 보복적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런 현실적 의미의 자유는

확실히 네티즌에게 더 많이 보장된다. 법은 왜 네티즌을 더 관용할까? 법이 가상 공동체에 대한 관할권이 없기 때문일까?

아니다. 첫째 '정치'로서의 민주주의가 '기술'로서의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상대적 익명성, 탈중심적 분배구조, 다중 접속, 지리적 무제약성, 암호 도구의 이용 등 기술 코드를 현실의 법 코드로 완전히 환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네티즌의 타인, 타 집단에 대한 침해는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무해한 악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은 사이버 아나키스트들에 대해 관용적이다.

정부는 네티즌의 사회생활을 규제할 수 있을까? 그렇다.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온라인 한국'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여기에 바로 아주 기묘한 딜레마가 숨어 있다. 정부가 네티즌의 일상을 원칙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완전히 감시, 통제할 수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하는 멋진 신세계가 아닐 것이고, 전혀 규제할 수 없다면(규제해서는 안 된다)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멋진 신세계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가? 이는 무수히 많은 가상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기 다른 '코드의 성질'에 달려 있다. 그들만의 코드로 은밀한 소규모 공동체를 건설하고, 각자의 가상 육체 아바타를 이주시키면 아바타들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 규제만 있는 절대적 자유를 누리고, 만인은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파레토 최적'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정부는 가상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감시가 용이한 건축 자재(코드)사용을 권장할 것이고, 문벌이론을 노리는 인터넷 기업은 가능한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코드를 사용하여 가상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정부를 빅 브라더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제가 용이한 가상 공동체는 언제나 인구 밀도가 높고, 따라서 통제에 저항하는 조직적인 대규모 반정부 혁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네티즌은 주권자인가? 1세대 네티즌들은 그곳은 지배도 없고, 파괴도 없는 무한 자유의 공간이므로 시민주권 따위는 질문될 수 없는 물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한 국가 네티즌은 비자 없이 국경을 넘어 로마로 갈 수 있지만, 그래서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지만, 그는 여전히 한국인이다. 밀반출한 달러로 라스베가스에서 즐겁게 도박을 한 한국인은 돌아오면 처벌받는다.

네티즌은 현실 공간의 시민들과 주권을 놓고 경쟁하는 주권자이다. 민주적·합법적 통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주권 통제는 필수적이다. 가상 공동체는 물리적 공간으로 따로 있지만, 그곳에 사는 네티즌은 따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구 승 희
문과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POWER

대학생, 그들의 클릭에 잠재된 거대한 힘

젊음 특유의 신선한 발상 ... 사이버 공간 주도세력으로

“좀 있다가 메신저에서 만나자”

밤 11시가 넘은 시각. 두 학생이 각자의 집으로 향하며 이같은 대화를 나누다면 ‘메신저? 어더란 말이지?’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몇은 이들이 어디에서 만난다는 것인지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두 학생의 약속장소는 대학로도 종로도 아닌 바로 인터넷의 어느 채팅방이다.

대학생의 9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곳은 또 하나의 자기세상이다. 현실세계보다 자유롭고 솔직한 인터넷의 매력은 젊은이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은 얼굴을 맞댄 집단이 되기보다는 모니터를 맞댄 개인이 되고자 한다.

그렇지만 이들이 단지 컴퓨터라는 작은 기계에 구속당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은 젊은이들에게 현실세계보다 확장된 공간을 제공했고 그들은 이곳에서 ‘네티즌’이라는 거대한 집단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개인주의로 대변되는 대학생들은 인터넷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곳에서 각종 모임을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며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간다. 또한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를 학과 공부에 직접 이용하고 있으며, 실종된 토론문화가 다시 꽃피우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도입 초기 우려됐던 젊은이들의 사회성 결여는 기우에 불과했던

것이다. 오히려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던 대학생들에게 인터넷은 개개인을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가 되었고 이들은 이제 자신이 속한 집단 혹은 사회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바람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본교 홈페이지 역시 학생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으로 그 열기가 뜨겁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제도나 행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던 이전과는 달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불만사항을 건의하거나 질문을 올리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젊은이들에 대한 우려도 이곳에서만은 예외다. 지난 4월 민주당 경선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젊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정치권으로 쏠렸다. 본교 3학년의 한 학생은 “자주 이용하는 메일 사이트를 통해 민주당 경선 소식을 접했다”며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논쟁을 보면서 나도 한번 참여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대학생들이 게시판 혹은 인터넷 언론을 통해 정치소식을 접하면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또한 ‘안티 이회창’ ‘안티 김영삼’ 등 정치인 안티 사이트에 이어 정치관련 커뮤니티들이 속속 개설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자

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히고 있는 것은 인터넷이 그만큼 열린 공간이기 때문인 것이다.

인터넷 보급망을 타고 거대한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네티즌. 대학생들에게 인터넷은 더 이상 가상이 아닌 확장된 현실이다. 20대 젊은 네티즌들의 열정은 4,50대의 무기력함과 10대의 가벼움과는 분명 다르다. 기성세대보다 신선한 발상, 청소년보다 차가운 이성, 이기적이지 않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희망’이라 부른다. 네티즌이 사회변혁세력으로 성장하는 길, 그 선두에 대학생이 있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동악 네티즌 바라보기

네티즌이 만드는 또 하나의 작은 사회



건의사항 · 나의주장... 적극적 의견 개진 상대방 비방, 사실왜곡 등 소모전 지양해야

또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내에도 학내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네티즌이 있다. 그렇다면 본교 네티즌이 활동하고 있는 사이버 환경은 여론을 수렴, 형성하거나 이끌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써 얼마만큼의 기능을 하고 있을까.

본교 홈페이지 여론광장에는 ‘건의사항Q&A’ ‘나의주장’ 등이 마련돼 있다. 건의사항Q&A는 학생들이 수업 · 성적, 전과 · 전공, 수강신청, 시설 · 설비, 복지시설 등과 관련된 불만사항을 토로하고, 궁금한 점을 묻는 공간이다. 동악의 네티즌은 이 게시판을 통해 하루에 수십여 개에 달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본교의 미흡한 시설이나 비합리적인 제도를 변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다.

하루에 2,300개의 글이 올라오는 나의주장란 역시 대표적인 본교 여론 형성의 통로이자 수업 공간 중 하나다. 많은 학생들이 나의주장란에 개인적인 이야기는 물론 학내의 중요한 사안 혹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비판의 일격을 가하기도 한다. 또한 하나의 글에 이어지는 여러 개의 답글은 이곳이 단순한 의견 개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상호교환이 이뤄지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의주장란에는 때때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에 대해 배타성을 보이며 무조건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혹은 진지하게 의견을 묻고 있는데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이 올라오기도 한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를 과장, 왜곡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남발하며 ‘소모전’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학교 홈페이지 외에도 총학생회(dongguk34.wo.to), 총여학생회(16women.wo.to), 각 단과대별 학생회 홈페이지 역시 학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각 학생회 홈페이지에서 활발한 의견 개진이나 활성화 된 토론의 현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고 학생회 홈페이지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연결되지 않아 접근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회 홈페이지는 일반 학생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학생회를 이어주는 공간인 동시에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반영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이다. 때문에 각 홈페이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홍보와 함께 동악 네티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본교의 네티즌은 인터넷 상의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기도 한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1천여 개 카페, 프리챌의 700여 개의 커뮤니티를 통해 본교 네티즌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카페나 커뮤니티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그룹을 형성, 학내 소문 등 여러 가지의 인터넷 상 모임은 모집단위 광역화로 인해 사라지다시피 한 학생들간의 연대감을 새로이 형성시켜주는 대안 공간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나의 주장

글꼴 크기: "나의 주장"은 사용자 인종 및 게시물 내용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미하의 게시물은 수정이 불가능하며, 3주 게시후 자동 삭제 됩니다.

출력내	동국인
제목	15주 수업에 대하여
내용	<p>본교 홈페이지 여론광장에는 '나의주장'이라는 익명게시판이 있다. 동악 네티즌들의 현주소를 알기 위해 요즘 이 게시판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15주 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보았다.</p> <p>한 학기에 16주 강의를 해도 수업진행이 매우 빠빠하고 후반에는 진도 나가는 것에만 열중하여 수업의 질이 낮아진다. 다학기제 도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검증과 계획도 없이 교육개방을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학내구성원들을 의견은 무시한 채 단순히 흐름을 쫓아가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조차 15주 수업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납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합의 없이 15주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p> <p>LR: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평소에는 좀 잘하고 열심히 하지. 평소에 공부만 열심히 해봐. 한 학기 동안 15주든 16주든 남는 거 많다.</p> <p>LR: 꼭 일주일 그런 게 중요하냐. 얼마나 착실하게 시간 배분하면서 공부하느냐 하는 게 더 남는거지.</p> <p>LR: 꼭 수업 일수에 연연하는 애들이 며칠 풀로 학교 앞에서 술 마시고 놀고 떠돌고 하는 것 아닌가? 꼭 할 일 없어 빈둥거리고 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등록금 연연하면서 수업 일수 탓하고 그러지 않냐.</p> <p>LR: 16주에 등록금 몇 백만원이면 한 주에 얼마쯤이죠? 남 부모님께서 내주시는 비싼 등록금. 한푼이라도 잘 챙겨서 학교 잘 다닐 생각은 안하고 어찌 그리 어린애 같은 생각만 하십니까? 학교 수업이 15주가 됐다면 당연히 16주에서 뺄 나머지 한 주 수업료 분을 돌려 받던지 16주 수업으로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p> <p>LR: 16주 수업!! 정말 하고 싶습니다. 사실 1학기 월드컵이다 뭐다 하면서 한 15주 수업은 학기가 끝나고 나서 뭘 했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15주, 16주 차이가 얼마나 되겠냐고 하시겠지만 한 주라도 더 배우고 학기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p> <p>LR: 왜 학교는 사전 동의나 설명 없이 15주 수업을 진행해 버리는 겁니까?</p> <p>LR: 15주 수업의 폐해는 이미 지난 학기에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저번 학기는 월드컵이라는 핑계가 있었다고 치고 이번엔 도대체 뭘니까? 1주를 줄이면서 오는 시간강사급료와 기타 시설비, 그러면서도 올라간 등록금이 그렇게 필요했습니까? 늘 은근슬쩍 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학생회는 왜 이 사실을 여론화하지 않는 겁니까?</p> <p>LR: 근데 말이죠. 저도 지난 학기에 월드컵 때문에 단축 수업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개강 날 아는 교수님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수업일수가 줄었다는 말이 나왔는데 월드컵 열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여쭙 봤더니, 원래 교육부에서 말하는(권장하는) 강제하는? 그건 잘 모릅니다(만) 대학의 수업일정은 일년에 30주래요. 원래 그렇대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해 왔던 16주 일정 수업 수준의 등록금을 1주 가량 더 줄여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쟁점은 남게 되는 건데요. 학생이 알 수 있는 학사 행정의 속내란 것은 정말 한정되어 있다는 걸 느끼죠, 이럴 때.</p>

정리=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달하나 천강에



봉 일 원
문과대 독일학과 교수

흡연과 금연 사이

수해지역에 대한 처참한 내용의 신문 및 방송 보도를 접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안타까운 심정이었으리라. 게다가 같은 재난을 당한 독일지역의 대처 및 복구 상황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도 속이 풀어 애꿎은 담배에게 화풀이를 하고 만다. 이처럼 담배는 내 삶에 있어 언제나 손쉽게 다가서는 위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위로자로부터 은밀히 조심스럽게 떠나갈 여정들을 꾸리다보니 지나간 세월의 단편들이 되살아나 몇 자 글로 옮겨본다.

대학교 3학년 재학시절 아버님을 저 세상으로 보내드리면서 아무 것도 해드릴 수 없었던 불효자의 죄절감어린 가슴을 쓰다듬어주던 내 생애 첫 담배는, 7년간에 걸친 독일유학시절 여러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데 일조하면서 여러 유형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파이프 담배의 모습으로, 잎담배의 모습으로, 가끔 갑담배 및 시가의 모습으로. 이 가운

데 가장 낮은 모습인 잎담배는 잎의 종류나 마는 이의 손놀림에 따라 각각각색의 맛이 연출된다.

이러한 잎담배에 대한 추억은 지난 7월 26일까지 5주간 독일에 체류했던 기억들을 늘어놓는다. 독일의 레겐스부르크대학 어학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15명의 학생들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기내에 탑승하기 직전 한모금의 담배연기를 위해 흡연실로 향했다. 거의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삶의 여유는커녕 삭막한 처량함이 드러나고 있었다. 약 10시간의 비행 후 프랑크푸르트공항에 도착하여 기내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곳에 비록 지정석이기는 하나, 개방되어 있는 흡연장소는 기쁨의 수준을 넘어선 특혜 그 자체처럼 느껴졌다. 이 상반되는 경험은 독일을 떠나 귀국하는 여정에서 재차 되풀이되었다. 또한 독일의 대학을 비롯한 여러 시설에서도 아직은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비교적 흡연자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독일 체류기간에 학생들과 함께 여러 종류의 수많은 와인을 음미하며 나누었던 추억어린 대화들, 중세기의 돌다리를 건너 도나우강가에 위치한 술집의 맥주파티에서는 한모금의 담배연기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더 풍겨주었다.

이러한 흡연과의 인연을 유지해왔던 평범한 한 사람의 입장에서 흡연이나 금연에 관한 예산론을 펼 생각은 없다. 정신적 건강을 위해 흡연을 하든 아니면 육체적 건강을 위해 금연을 하든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고 싶다. 그러나 덧붙이고 싶은 말은, 서로 다른 생활 양식이나 습관에 대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와 다른 다양한 생각이나 견해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더불어 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시스템화시키는 노력을 독일의 예에서 배울 수 있었으면 한다.

2002 동국 해외 탐방 (유럽편)

유럽의 선진 정치교육을 배우다

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하필 런던의 지하철이 과업을 했기 때문이다. 7월 18일, 파업으로 모든 지하철역이 폐쇄되어 운행하지 않았다. 오후 3시 노동당 당사 방문 일정이 잡혀 있는데... 버스를 타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하철 파업으로 만원이 된 버스는 정원 이상으로는 승객을 태우지 않았고 우리는 3시간이 넘게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려야만 했다. 결국 노동당 당사에는 약속시간보다 30분이 지나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오전 11시에 숙소를 나섰는데 말이다.

왜냐하면, 파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했기 때문이다. 1주일간의 영국 탐방을 마치고 독일로 가기 위해 파리를 경유하였다. 베를린행 발기차를 타기 전 약간의 낮 시간을 이용하여 파리 시내 관광을 하려고 했는데, 관광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하철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고 말았다. 속수무책으로 거금 200유로를 빼앗겨버렸다. 앞으로의 탐방을 어떻게 해야할지... 이제 하루 하루가 투쟁이다. 맥도널드 햄버거도 우리에게 과분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인터넷 중계를 하는 일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인터넷 강국이다. 유럽에서의 인터넷 사용은 '하늘의 별따

기'와 같았다. 인터넷 카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e-mail 확인과 채팅뿐이었다. MS Word조차 깔려있지 않은 PC와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가놓은 A-drive, D-drive는 우리를 안달하게 했다. 해외탐방의 필수 과제인 인터넷 중계를 꼭 해야만 하는데, 유럽의 인터넷 사용환경은 너무도 열악했다. 우리가 인터넷 중계를 하기 위해 겪었던 여러 가지 사연들을 어찌 이 좁은 지면에 다 실을 수 있을까!

도대체 보람이라곤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도 끝까지 탐방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했던 우리 자신이 대단스러워진다. 어쩌면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강해졌는지도 모른다. 낯선 곳에서의 생활은 분명 쉽지 않았다.

우리가 탐방하기로 한 주제에 대하여 열심히 탐방활동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었지만, 해외에서의 경험을 익히는 것도 해외탐방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를 격려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하지만 정치를 공부하는 정치학도로서 유럽의 주요정당과 의사당 등을 방문

했던 경험은 잊지 못할 소중한 체험이었다. 학과 수업을 통해서 영국과 독일의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에 관하여 배워왔지만 실제로 그곳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었다. 책에서만 접하던 것들을 실제의 체험을 통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조금은 감정적인 발언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영국과 독일의 정당 그리고 교육센터 관계자들에게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어쩌면 그들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을 잘 모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했고, 한국의 손님들을 맞이 위해, 한국과 관련된 화제를 꺼내는 일도 잊지 않았다. 늘 곁에서만 그러던 영국과 독일의 주요 정당, 기관에서 말이다. 단지 그곳에 다녀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다. 해외 탐방의 기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곳에 올 기회가 또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4년의 광범했던 우리의 대학 생활에 이번 2002 동국 해외탐방은 최고의 이벤트였다.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도전해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 해외탐방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 공부하게 되었다.

단지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하는 것과는 달랐다. 그리고 최종 합격을 했을 때의 그 성취감이란 차마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번 2002 동국 해외탐방을 통해 얻은 최고의 선물은 자신감이었다. 우리 스스로를 믿게되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우리 팀 최대의 수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에필로그

사람들은 정치를 싫어한다. 정치란 정치가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는 결코 정치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정치가와 국민 사이의 일종의 의사소통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단지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 거리가 조금은 멀다는 것이다. 정치가들과 국민들의 의사소통 거리를 좁혀 나가려는 노력이 바로 정치교육이다. 유럽의 선진적인 정치교육을 배우고자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2 동국 해외탐방을 통해 우리가 느꼈던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들도 역시 정치적 무관심에 고민하고 있었다.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은 정치적 무관심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먼저 국민들에게 다가서려는 그들의 노력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우리에게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은영, 김기연, 김범수 (사과대 정외4)



'조삼모사' 식 체제 탈피 위한 주체적 노력 기울여야

'조삼모사', 원숭이를 키우던 대부가 물러드는 원숭이의 수효를 감당하지 못해 식량으로 주던 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조삼모사'의 행태는 고사에 그치는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재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학생들은 수강신청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학생 스스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한 학기동안 강의를 듣는다. 언뜻 보면 학생들에 의한 민주적이며 자발적인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수강신청을 한 후 막상 개강이 되어 정정기간이 되면 학생들은 이 강의, 저 강의 옮겨다니느라 바쁘다. 강의들이 다양하지 않고 들을만한 강의는 조

기에 종료되어 버리는 등 '제한된 선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학생들은 졸업에 위해 학점의 기계가 되어 자신이 이끄는 대학생활이 아닌 학교에 끌려 다니는 대학생활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학교를 졸업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시키는 일이나 하는 피동적인 삶만이 그의 앞에 놓여 있을 뿐 창조적이며 지속적인 사고가 결여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조삼모사' 식의 대학생활에서 탈피하기 위해 학교측에 더욱더 많은 강좌신설과 제대로 된 실습실의 구비 등을 당당히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자

신의 앞길을 열정적으로 헤쳐나가려고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하는 복수전공자나 전공생들을 위해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다. 수강신청을 할 때, 학년에 묶여 기초과 과목수강이 어렵게 되거나 수강원인 차버려서 신청을 못해 발을 구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졸업이수학점을 좀더 낮춰 개인이 자신에 대한 연구와 공부에 좀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 '조삼모사' 식 체제를 탈피해야 실제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자영 (사범대 지교4)

백루(白樓)에서의 짧지만 소중한 기억

낯선 땅, 낯선 얼굴들, 그리고 끊임없이 오고가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의 총출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7주간의 만남을 약속하고 백루에 들어섰다.

서막했던 서로의 이름들은 내용골 여행이 끝나갈 무렵 서로의 입에서 불려지고 있었고, 그때부터 백루는 우리의 목소리로 가득하게 되었다.

여행을 다니면서도 북경외대에 어학연수 목적으로 간 까닭에 학업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까닭에 어려움도 많았다. 중국의 찌는 듯한 더위에 하나 둘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얼굴을 붉히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기울인 잔의 깊이 만큼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백루 생활은 하루하루 저물어 가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짧게만 느껴졌던 어학연수 기간동안 나이도, 고향도, 전공도 각기 다른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준 건 동국대학교,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겠다는 그 마음이었을 것이다. 서로 무엇을,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마음속에, 기억 속에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곳에 우리들의 이름과 백루에서 함께 했던 추억들이 남아 있었으면 한다.

지금도 백루는 우리 같은 쓰내기 유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을 것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짧지만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 백루 : 중국 북경의 기숙사
고지영 (인문대 중문2)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단순 문제제기 보완해야

지난호 동대신문을 살펴보면 순오지(荀五志)에 나오는 '신사후명부(神祀後鳴缶)'란 말이 생각난다. '신령 제사 지낸 뒤에 장구 소리난다'는 풀이로 이미 일이 끝나고 지나간 뒤에 쓸데없이 뒹뒹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1면 머리기사로 다루고 있는 '수업 15주 단축'에 관한 기사는 1년 전 확정된 학사일정으로 이미 지난 학기에 15주로 단축되어 진행된 일을 구체적 방안과 논의 없이 기사화한 것은 개강 후 또 다시 단순한 문제 제기에만 머무는 듯한 인상이었다.

기사내용을 보면 지난 1학기 단축이 '월드컵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인용했으며, 지난 총학생회

의 26일 면담신청을 아무런 내용 없이 실어 궁금증을 야기했다.

수업 단축은 단순히 등록금이 아까워 서나 행정편의가 아닌 진정으로 양질의 수업이 진행되도록 구성원들간의 노력과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 더욱 엄정한 출석관리와 결강 없이 준비되고 내실 있는 강의로 부족함을 메워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는 구성원들간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음을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또한 동대신문은 문제 제기와 더불어 논의의 발전을 위한 기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오늘날도 도서관에서 24시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최일우 (서울캠 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다양한 주체 의견 듣기를

개강하고 2주차에 접어들면서 학교 생활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접할 수 있었다. 대행히 지난 호 동대신문에서는 개강 첫 주에 대한 학사일정 문제점을 다뤄 신문을 접어든 내게 보람을 가져다 주었다. 개강 후 첫 주는 항상 휴강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만행이 되어 버린 우리학교의 수강 정정 문제점에 대해서 기사화했던 것이다.

하지만 학교의 입장만 밝히기보다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생들 자신은 많은 등록금을 내고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 대한 서로의견을 나누는 내용을 다루지 못해 조금 아쉬웠다.

신문은 학교의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주체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구성원들간의 노력과 행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쉬움을 남기면서도 흔하지만 한번 되짚어 볼 만한 것들, 대학 생활에 있어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이가 바로 신문이 아닐까.

앞으로도 학교 생활의 문제점을 학생이나 학교측 양자 간 입장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는 기사가 독자인 나를 찾아왔으면 한다.

김지연 (인문대 중문3)

룸비니 동산의 추억을 아시나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는 10월의 어느 날이면 좋겠다.
조금 나른한 듯 또 한가한 듯 거니는 사람들 틈이라면 더욱 좋겠다.
꿈결인 듯, 길어 가보는 것도 좋겠다.
항상 옆에 있어서 소중함을 잃어버린 친구라면 더욱 좋겠다.
오늘, 내가 또 내가 있었던 그곳으로 가고싶다.
어느 틈인가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서지 못하는 곳...
1학년 어느 때쯤 강의실에서 보이는 그 숲이 너무 스산해서 "뭐지?"라고 그저 혼자 독백하던 그곳으로 가고싶다.
조금 수줍은 듯 붉게 물든 단풍이 있으면 좋겠다.
그 계단...
처음 만들었을 땀 무척이나 많은 바램으로 설계 되었을 그 계단으로 올라선다.

하나둘 빛바랜 벤치들이 눈에 띄고...
그 세월만큼이나 굳게 다져진 흙을 밟아본다.
내 깊은 곳까지 심오함을 하고 주위를 둘러본다.
애 있고 지내던 기억들... 기억들...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 어느 모퉁이엔가 숨겨놓았던 내 추억들...
그가 보인다...
그녀가 보인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는 10월의 어느 날이면 좋겠다.
그저 산책을 왔었다고 이색론 변명을 못어널길 수 있는 친구와 함께라면 좋겠다.
오늘 난 룸비니 동산에 가고싶다.

김권환 (인문대 중문3)

TV 속 신기루 궁전 일반인은 출입금지!

계모와 이복언니의 괴롭힘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지만 착한 심성 덕에 왕자님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신데렐라 이야기. 여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신데렐라가 되는 꿈을 꾸었을 것이다.

이런 소박한 꿈은 성년이 되면서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되고 왕자님은 어느새 재벌 2세로 탈바꿈한다. 그리고 예쁜 그림이 곁들여 있던 동화책은 화려한 조명의 TV 드라마로 변해있을 것이다.

요즘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왕자, 공주들이다. 인물들의 주된 직업은 의사, 디자이너, 연예인, 기업가 등이며 거의 다 외제차를 소유하고, 옷과 장식품은 고가의 명품뿐이다. 이처럼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현실 사회에서 소수에 불과한 엘리트로 집중된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TV의 매체 성격을 지적할 수 있다. TV는 시청자들의 채널선택에 의해 시청률이 좌우되므로 그들의 시선을 한순간이라도 놓쳐선 안 된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자신의 생활과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에 별 흥미를 갖지 않는다.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동경과 이에 따른 대리만족 욕구를 드라마의 인물을 통해 해소시켜 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물 설정이 사회 특권층으로 쏠려질 수밖에 없다.

TV 드라마 속 천편일률적 인물 구성 시청자·제작자 인식부터 바꿔 나가야

또한 TV 드라마의 짧은 제작기간 역시 한정된 인물 설정의 원인이다. 비교적 탄탄한 제작기간을 거치는 영화와 달리 TV 드라마는 짧은 기간에 제작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작 당시 시청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를 파악해 그 조건에 맞는 인물을 재빨리 드라마 속으로 끌어들여, 기본적인 시청률을 확보하는 것이다. 방송 3사 드라마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음으로 시청자들이 TV 드라마를 통해 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야 한다. 직접 극장을 찾아야만 볼 수 있는 영화와 달리 언제든 볼 수 있는 TV를 통해 시청자들은 메시지도 재미를 얻고자 한다. 그렇기에 드라마를 영화 수준의 제작비로 만든다해도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극적 재미가 빠져있다면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TV 특성상 '지배 이데올로기'를 따라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조종흠(영화영상학) 교수는 "TV 드라마가 현실을 그리는 매체인 만큼 현실을 움직이는 지배세력들이 주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TV 드라마의 인물을 결정짓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이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영향력이다.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 화면에 비쳤던 약세서리까지 유행하듯이 극중 인물들의 모습과 사고방식은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머릿속에 자리잡는다. 그러나 보면 시청자들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화려한 드레스와 마차를 만들어 준 요술할머니. 그러나 TV는 시청자들의 부푼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요술할머니가 되어줄 수 없다는 점을 제작자와 시청자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one@dongguk.edu



연극동아리 '극예술연구회'.

학생회관 5층, '극을 연구한다'는 닳은꼴을 가지고 스스럽없이 지내는 이웃사촌이 있다. 과연 그들이 연구하고 추구하는 극이란 어떤 것일까. 이에 민속극연구회 '탈'의 김민희(가교2) 양과 '극예술연구회(이하 극회)' 윤원미(회계4) 양이 함께 이야기했다.

기자 = 평소 서로에 대한 인상은 어땠나요.

윤원미(이하 윤) = 실업자 문제나 대우차 노동자 문제를 다룬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비록 보는 사람은 적었지만 동글게 둘러앉아 관객과 배우가 함께 호흡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이야기들도 꽤 흥미로웠어요.

김민희(이하 김) = 저희는 지난해 '아름다운 그들'을 단체관람 했어요. 저희는 해학과 풍자라는 요소 때문에 과장된 몸짓을 하는 데 반해 극회는 조그만 동작이나 미세한 표정변화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그래

문화 VS 문화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사회·정치적 주제의식을 문화로 통해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취향과 기호에 따른 문화를 즐기는 학생들도 존재한다. 이에 서로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고 학내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동국대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같고 또 다른 문화를 추구하는 학생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 ① 이리랑 VS 피어리스 댄
- ② 탈 VS 극예술연구회
- ③ 율동패 VS A-JAX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우리는 닳은 꼴”

서 배운 점도 많았어요. 그런데 극회는 주로 창작극을 하시는 건가요?

윤 =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존작품을 조금 각색하는 경우도 있고, 희곡 쓰기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작품을 올리기도 하는 거예요.

김 = 그렇다면 아래로 개인적인 고민이나 이야기가 많겠네요?

윤 = 꼭 그렇진 않아요. '아름다운 그들'도 이런저런 사회적인 이유로 죽음을 맞게 된 여성들의 이야기니까요. 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문제제시만 한다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직접 말하기보다 그 감정을 전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관객들의 몫으로 남기는 거예요.

김 = 탈은 대본을 공동창작 해요. 아이템이나 이야기 플롯을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거죠. 많이 갖지 못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일부러 동영상 보고 노동현장을 찾기도 하면서 준비해요. 제대로 알아야 잘못된 걸 꼬집어 낼 수 있을 테니까요.

기자 = 그렇다면 극의 매력이란 뭘까요.

윤 = 등장인물 중에서도 특히 끌리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인물에 동화돼 제 자신을 투영해 버리곤 하죠. 그런데 관객들도 마찬가지로 말하거든요. 연극의 매력은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훑고 찾는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민속극연구회 '탈'.

김 = 저도 비슷해요. 연기하는 순간에 나지만 내가 아니라는 묘한 기분이 들거든요. 게다가 관객의 눈과 마주쳐 뭔가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이게 바로 뭔가에 미치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기자 = 하지만 두 동아리 모두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던데.

김 = 맞아요. 극회와 탈을 헷갈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연습하고 생활하는 게 비슷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10월 말에 정기공연이 있어요. 그 때 정말 눈물을 쏟 뽀농을 작정으로 열심히 할 거예요.

윤 = 저희도 거리공연이나 가정행렬 등을 생각하고 있어요. 기회가 닿는다면 저희 공연 때 탈이 끼게요. 출연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김 = 팬층은 생각인 것 같아요. 교류가 힘들긴 하지만 신입생 홍보부터 함께 연대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문화단신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제4회 국제판타스틱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건국대 새천년 기념관홀에서 개최된다. 자동차 레이서들의 이야기를 다룬 '엑스 드라이버'를 개막작으로 모두 13편의 작품이 상영되며, 다음달 일본에서 방영될 '공각기동대' 최신판 TV시리즈가 최초로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예년에 비해 큰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대중성보다는 매니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꾸러지며 애니메이션 전문가들의 강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31) 815-4000

변방예술제 개막

젊은 공연예술인들의 모임인 '서울공연예술가들의 모임'이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소극장 학전블루 등 대학로 일대에서 '변방연극제'의 문을 연다.

비주류 공연예술인들이 모여 공연예술의 범위를 한층 넓히는 계기를 마련해 온 이 행사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다.

총8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르는 올해는 특히 일본과 독일 등의 외국단체가 초청돼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일에는 축제 참가자의 제작과정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포럼자리도 마련된다.

문의 3673-5573/ 766-0010

클릭! 대중음악·대중문화 비평웹진 가숨(www.gaseum.com)



'지금, 여기, 우리의 가숨열기'를 모토로 지난 1999년에 창간한 가숨(www.gaseum.com). '대중음악·대중문화 비평웹진'이라는 공식명칭에도 불구하고 음악관련 글과 자료가 주로 링크돼 있는 별난 사이트다.

박준흠 편집장의 말을 빌리자면, 이 웹진은 음악산업 내에서 매체의 역할을 생각해 보다 좋은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고 그동안 과대평가된 음반이나 가수들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창간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비주류 음악전문집인 션이다. 때문에 기존의 음반산업과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음반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가해지는 게 사실이다. 가령 몇몇 가수나 그룹을 '연주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니' '그 나이에 걸

맞은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속이 꼭 찬 이 사이트의 콘텐츠를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애정 어린 '충고'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오늘의 음반리뷰' '이달의 뮤지션' '클럽+공연 정보' 등과 같은 콘텐츠를 기본으로, '부산록페스티벌' '인디레이블' 등을 다룬 기획코너를 마련해 음악과 듣고 관련자료들을 볼 수 있게끔 해 놓았다.

또한 '뮤직다큐멘터리 비평'을 비롯해 '가숨 인터뷰' '내 인생의 음반' 등 참신한 구성으로 여타 음악웹진과는 다른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책과 영화 비평글들을 볼 수 있으며 일주일에 한번씩 업데이트 되는 인터넷 방송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이들의 다양한 관점을 선보이기 위해 수시로 모집하는 '오늘의 음반리뷰' 필자 시스템도 눈여겨볼 만하다.

가요계나 음반업계만 생각하면 답답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가숨을 클릭해 보라. 답답한 가숨이 뽀 농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송편배우기 & 사랑나누기

추석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 송편.

송편 빚기를 배우며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정성껏 만든 송편을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하여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쁜 송편을 빚은 학생에게는 시상의 기쁨까지.

본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추석의 의미를 나누며 뜻깊은 추석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프로그램

- 10:00 ~ 10:10 인사말·행사진행안내
- 10:10 ~ 10:30 추석의 의미·떡에 관한 설명 및 시연
- 10:30 ~ 15:30 유학생과 함께 송편빚기
- 15:30 ~ 16:00 예쁜 송편시상·송편전달

▶ 시상내역 : 으뜸상, 버금상, 아차상, 끈기상

▶ 일 시 : 2002. 9. 18(수) 10:00 ~ 16:00

▶ 장 소 : 계산관 앞마당(사범대 옆)

▶ 주 최 : 여학생실 ☎ 2260-3056

▶ 후 원 : 참사랑봉사단

여 학생 실

교직원수 및 교직원전공 이수자를 위한

설명회 개최 안내

최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과 관련하여 교직원수 및 교직원전공 이수 시 학점이 상향됨에 따라 사범대학생 및 교직원과정 이수자에게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교직원수 시 전반적인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원만하게 교직을 이수하도록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02. 9. 12(목) 17:30 ~

2. 장 소 : 학림관 J201

3. 참석대상

- ▶ 사범대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원과정 이수자
- ▶ 교직설치학과 학과행정조교
- ▶ 교직원수 및 교직원전공에 관심있는 자

사 범 대 학

직업흥미검사 실시

새로운 기대와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학기초입니다.

처음은 항상 설레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은 처음에 품은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그 대학생활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과 진로를 청하는데 직업흥미검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여러분의 미래에 초대합니다.

1. 실 시

- ▶ 제1회 : 10. 1(화) 오후 2~3시
- ▶ 제2회 : 10. 10(목) 오후 2~3시
- ▶ 제3회 : 11. 5(화) 오후 2~3시
- ▶ 제4회 : 11. 14(목) 오후 2~3시

2. 접수 및 검사비

- ▶ 접수 : 학생상담센터
- ▶ 검사비 : 무료

3. 문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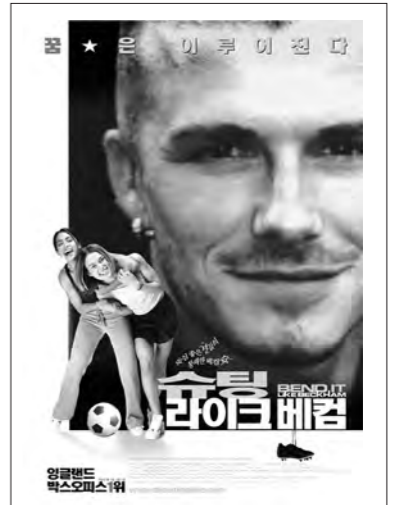
학생상담센터 (본관 2층, 구내전화 3930~2)

학 생 상 담 센 터

매체비평

영화편 - 슈팅 라이크 벡컴

“벡컴처럼 휘어차라, 인종과 성별의 벽을 넘어”



인도 소녀의 최충우를 축구팀 입성기를 그린 영화 '슈팅 라이크 벡컴'.

몇 달 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월드컵, 그 중에서도 스페인 전의 승부차기 중 마지막 골을 멋지게 성공시킨 홍명보 선수의 모습을 기억하는지. 유난히 환하게 웃으며 어린아이처럼 달리던 모습에 마음 설렌 여성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나도 저렇게 공을 차고 싶다'라고 생각한 여성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

'슈팅 라이크 벡컴'(원제:Bend it like Beckham)은 말 그대로 영국의 축구선수 데이비트 벡컴처럼 슈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사람이 영국에 사는 인도인이고,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화 속 현실에서는 문제가 된다. 그것도 아주 많이.

공원에서 남자아이들과 공을 차던 제스는 정식 여성축구팀 소속인 줄스의 눈에 띄어 축구팀에 입단하게 된다. 모처럼 기량을 발휘할 기회를 잡은 제스는 중립무진 활약하며 코치에게도 실력을 인정받지만 제스를 가로막는 장벽은 한둘이 아니다.

제스의 어머니는 "공이나 차는 여자애를 누가 데려가겠니"라며 집안일을 가르치려 들고, 뛰어난 크리켓 선수였던 인종 문제로 어느 팀에도 입단할 수 없었던 아버지 역시 제스에게 변호사의 길을 강요한다. 게다가 제스의 축구팀 친구 줄스를 영국인 남자친구로 착각한 인도인 사돈 때문에 제스의 언니 핑키는 과혼까지 당한다. 성 역할과 인종문제에서 비롯된 갈등은 제스가 경기 중 '인도년'이라고 욕한 상대선수를 밀쳐 퇴장을 당하고, 축구를 계속한 것이 들롱나 결승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최고조에 달한다.

그러나 영화는 비참한 현실과 좌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제스의 아버지는 결국 크리켓을 포기해야 했을 때 받은 상처를 때워리며 제스에게 축구를 허락하고, 우여곡절 끝에 결승전에 출전한 제스는 줄스와 함께 미국의 프로여자축구팀에 스카우트된다. 마치 '같이 아니면 돌아서 가라'고 말하는 듯이, 혹은 우아한 곡선을 그리는 벡컴의 프리킥처럼 영화는 제스가 난관을 피해 활로를 찾는 과정을 유쾌하게 보여준다.

또한 영화 곳곳에는 남성중심주의와 동성애 차별에 대한 비판이 숨어 있다. 줄스의 어머니는 스포츠 브레이저를 하고 공을 차는 딸에게 "스파이스 걸스 중 왜 선택을 같은 애(스포츠 스파이스)만 남자가 없는 줄 아니?"라고 푸념을 하고 제스의 절친한 남자친구 토니는 "난 '정말' 벡컴이 좋아"라며 커밍아웃을 한다. 이처럼 영화는 동성애, 남녀의 성 역할, 인종 문제 등 자칫 무겁고 딱딱해지기 쉬운 소재를 화려하고 때때씩인 인도의 전통 결혼식 장면과 함께 경쾌하게, 그러나 너무 가볍지 않게 다루고 있다.

벡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자유롭게 날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수많은 편견과 고정관념들로 얽어매는 이 사회에 우회적으로, 그러나 통쾌하게 '한 골'을 날리는 영화 '슈팅 라이크 벡컴'. 문득 '명보처럼 공차기' 같은 영화가 만들어질 날을 떠올려 본다.

이수경 문화부장 papaya@dongguk.edu

니들이 아햏햏을 알아?

다양성 존중하는 열린 구조 통해 기성문화 틀 깨는 창조적 문화현상으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한 시대를 풍미한 유행어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새로운 유행어가 등장했다. 그런데 이전의 유행어들이 기존의 언어를 약간 변형시키거나 미묘한 뉘앙스를 이용한 것에 비해, 이 단어는 우리말 역사상 한번도 출현한 적이 없는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다. 바로 '아햏햏'. 인터넷 디지털 카메라 정보제공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의 열기갤러리에 올라온 한 사진 속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말이다.

시작은 한 사람의 손끝에서 생겨난 오타였다. 그런데 디씨인사이드 회원들이 이 단어에 매력을 느껴 사용하면서부터 인터넷 상에 '아햏햏'을 주제로 한 사이트와 커뮤니티가 속속들이 생겨나고, 게시판에는 시도 때도 없이 이 단어가 출몰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이 단어가 인쇄된 티셔츠가 제작되고 거래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햏햏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 단어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는 듯하다.

모든 경우에 쓰이는 아햏햏은 어떤 설명도 분석적인 접근도 거부하고 단지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만을 받아들일 뿐이다. 그나마 조심스럽게 아햏햏의 의미와 근접하지 않을까 추측해보는 것은 바로 진리, 혹은 '도(道)'의 개념이다.

'아햏햏 닷컴(www.ahhhhh.com)'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햏자'라 칭하며 '~하오'체를 사용한다. '햏자'는 구도자를 뜻하는 '햏자'의 변형이고, '~하오'체는 선문답에 쓰이는 어투이다. 그리고 이들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척하며 변화무쌍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외친다.

이런 아햏햏의 확산은 소통의 단절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한 문제를 놓고 자신의 논지를 열심히 전개해도, 답변하지 않고 '아햏햏하다'라는 말로 일축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생산적인 논쟁의 장이 벌어지기 보다는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논 의의 자체를 거부하는 풍자로도 볼 수 있다. '아햏햏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무시이기에 앞서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 모두를 포용하고 옹고그름의 이분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그 열린 구조로 인해 기대권이 가지는 절대적인 권위, 나아가 확립된 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사람들이 아햏햏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너의 황당 = 나의 열광

개벽이 · 친구 등 ... 문화 정형화 탈피 새로운 감성 자극

흰 솜뭉치 같은 몸매와 토끼답지 않게 짧은 귀를 가진 토끼에게 한 여자가 사랑을 고백한다. 토끼는 "가! 가란 말이야"라고 말하며 여자를 외면한다.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자 토끼가 소주병을 꺼내준다. 그러더니 그 소주병을 머리로 갠 후 뺨쪽한 부분으로 자신의 배에 '가!'라는 피문신을 새긴다.

이것은 '열기토끼'로 더 잘 알려진 '마시마로'를 모 CF의 이야기로 패러디한 것이다. 이처럼 과격하고 어이없는 토끼의 행동은 지난해 열기의 대표적 코드로 자리잡으며 신세대들을 열광시킨 바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열기토끼에게 도전장을 내는 아이콘들이 등장했다. '아햏햏'이라는 말과 함께 많은 매니아를 거느린 이들은 종류도 가지가지다.

우선 선두주자는 구멍이 난 벽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는 '개벽이'다. 마치 개가 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지금은 고유명사가 됐다. 매니아들은 인위적으로 꾸며진 애완견과 달리 순진 무구

한 개벽이의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며 개벽이를 자신의 친구처럼 여긴다.

또한 영화 '취화선'의 '장승업'도 우상으로 떠올랐다. '세상이 뭐라하든 나는 나, 아햏햏이요'라는 카피의 패러디 포스터가 유행하면서 영화의 주인공 장승업까지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매니아들에게 그의 세상을 달관한 듯한 모습과 자유로운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요계의 아이콘은 일본인 가수 '초난강'이다. 초난강은 사랑을 '썰렁'이라 발음하는 어눌한 한국어실력과 붉은 색의 볼타치로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특히 초난강이 외치는 한국사랑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고, 적지 않은 그의 나이가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작용한 것이다. 일부 매니아들은 초난강의 앨범이 생활필수품이라며 그의 한국어 발음을 일부러 따라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CF에서 "니들이 게맛을 알아?"라는 대사로 보는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는 텔레트 '친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중후한 이미지를 벗어나 시트콤의 코믹한 연기로 전성기를 맞은 그의 변신이 평범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적중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아이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콘들이 사람들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이유는 정형화된 것을 싫어하는 신세대들의 정서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발 나아가 고정화됐던 문화의 틀을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신조어 사용지침서

외국어같은 우리말, 이럴때 쓴다

△아햏햏 오타에서 유래.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희노애락 언제든 사용 가능.

동(어) 기쁘다. 슬프다, 예쁘다, 화나다 등 무궁무진.

A : 이 옷 어제 산거야. 어때? 나한테 잘 어울려?
B : 응, 특히 꽃무늬가 참 아햏햏해.

△방법하다 '깔고 안진 나이룩 방식 갖다놓아라. 안갖다 놓으면 방법한다. 방법하면 손발이 오그라진다. 갖다 노면 안한다'라고 쓰여진 쪽지를 찍은 사진에서 유래.

동(어) 경고하다
A : 저번에 너한테 빌었던 책을 깜빡하고 또 안가져왔어.
B : 내일도 안 가지고 오면 방법할거야!

△압박하다 월드컵 기간에 코스타리카 취재진들이 입고 온 티셔츠에서 유래. 셔츠 뒤에 쓰인 'press of coasta rica'를 '코스타 리카의 압박'이라고 해석하면서 유래.

동(어) 심한 고통을 주다, 심리적인 부담을 주다
A :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초체하니?
B : 전공과목이 F 나와서 엄마한테 압박당했어.

△삼배우다 '이곳에 개똥 싸우지 마세요. 아이들 방이니 개똥 싸우지 마세요. 개를 키우려면 남에게 피에는 주지 말아야지 이 양심 없는 인간이'라고 쓰여진 쪽지를 찍은 사진

에서 유래. 특별한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동(어) 싸다, 씹우다, 씹다 등
A : 그거 다 합쳐서 만원이에요.
B : 아니 이 아줌마가 어디서 바가지로 싸우고 난리야.

△햏자 도를 닦는 햏자에서 유래. 아햏햏과 관련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아햏햏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의 뒤에 붙여쓰는 말. 경지에 이른 햏자는 '햏햏'했다고 말한다.

동(어) 폐인 등
A : 어제 초난강 햏자가 TV에 나왔어.
B : 정말? 난 옆집 철수 햏자랑 노노라 못봤는데, 아쉽다.

△기타 상용어구 고구마 장사하게 100원만 주세요, 니들이 게맛을 알아? 등

문화부 culture@dongguk.edu



메아리

신(新)홍길동전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검술연습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다. 그의 이름은 홍길동. 이를 지켜보던 길동의 아버지 홍판서가 다가가 밤이 깊도록 잠을 청하지 않는 까닭을 묻는다. 이에 길동이 대답한다.

"소인이 서러워하는 바가 있으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그는 서자출신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홍판서의 아들이 아

니었으며, 이는 그에게 가장 큰 콤플렉스였다.

▲"정연 씨 이름 앞에 '이회창 후보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말 것."

한나라당이 지난달 27일 4 방송사에 보낸 협조공문 내용이다. 병역비리 의혹이 확산돼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이는 곧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각계에서 '전두환 정권 때의 보도지침과 비슷한 발상'이

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때문이다.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자 한나라당이 지난 5일 뒤늦게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지만,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신보도지침'이 현실화될 경우를 상상해보자. 정연 씨 앞에 '이회창 후보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해 많은 글들이 올라왔다. "이회창 후보와 모종의 관계에 있는 이정연 씨."

"이회창 후보의 딸은 아닌 이정연 씨." 하지만 그 중 압권은 다음 문장이다. "그때, 그냥 이정연이라 부르자."

▲이회창 후보 아들 이정연 씨는 조선 시대의 홍길동과는 매우 다르다. 타고난 무골기질인 홍길동과는 달리 179cm, 45kg(?)의 빼빼마른 체격의 소유자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비슷한 점이 있으니 홍길동이 공식적으로는 홍판서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이정연 씨도 '이회창 후보 아

들'이 아닌 그냥 이정연 씨라는 것. 항간에는 이정연 씨가 홍길동처럼 머리를 조아리며 아버지께 이런 말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는데, 믿거나 말거나.

"제가 소복도에서 아버님을 위해 갖은 수모를 당하였으나,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니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우정현 사회부장 caesar2000@dongguk.edu

예술대 영화학과 소모임 '전진새날' 탐방

짧은 필름에 큰 세상을 담은 사람들

영화 통해 사회문제 비판 ... 학생들과 함께 하는 자리 늘려야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다 나은 영상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빛나는 청춘을 노래하며 진보적 영화를 만들기 위해' 푸른 열정을 쏟고 있는 예술대 영화창작 소모임 '전진새날'이 바로 그들이다.

대학생이 생각하는 진보를 영화로 표현하기 위해 창립된 전진새날은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이했다. 다소 무겁고 진지한 주제인 '진보'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보다 쉽게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전진새날의 생각은 얼마 전 찍은 단편영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영화는 학교가 갑자기 폐교돼 아픔을 겪는 한 시골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지나친 도시화 문제를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의 한 단면을 필름에 담아내기 위해 전진새날 회원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학습' 시간을 갖는다. 이유는 영화창작 소모임과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회문제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다.



지난 여름방학 경기도 양평군 고소리 촬영현장의 회원들 모습.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 우리사회 인권문제에 대해 공부한 것에 이어 문학 속에 나타난 사회상을 알아볼 계획이다.

이와 같이 영화제작연습 뿐 아니라 사회문제학습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해 전진새날 회장인 김성현(영화영상2) 군은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 영화제작을 통해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본격적인 영화작업은 주로

방학 때 이뤄진다. 하나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주일의 촬영기간과 몇 주 동안의 편집기간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영화는 5분에서 10분 사이의 단편영화지만 시나리오 작성에서부터 편집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깃든 결실이라고 한 컷, 한 컷이 그들에게는 모두 소중한 것이다.

요즘 전진새날은 오는 11월에 있을 '전진새날영화제'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해 시작한 이 영화제는 아직 규모는 작지만 그들이 만든 영화를 학생들과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에 벌써부터 열광하고 있다.

순간의 웃음을 만드는 재미보다 영사가 꺼진 후에도 오랜 여운이 남을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전진새날. 앞으로 학생들과 영화를 함께 하는 자리를 더욱 많이 마련해 그들의 메시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새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인>

qwertewq@dongguk.edu

취업정보

자기분석으로 취업준비 시작하자

취업활동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당연히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다. 사회인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앞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초년병으로서 그간의 생활을 정리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는 물론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막연히 '취업하겠다'라고 결정짓기보다는 특정 업종 또는 특정 기업으로 자신의 목표를 좁혀가기 위한 초석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또한 작게는 취업시 필수요소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객관적 시각 중요

이러한 자기분석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도움 받아,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가지 소사들을 적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열중했던 일이나 학업, 동아리, 여가생활 등 과거의 모습과 성격의 장단점이나 취미, 특기 등의 현재

모습, 그리고 목표나 생활계획 등에 관한 미래의 모습을 기록해 보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이해 선행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막상 글로 옮겨 쓰자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업계 혹은 기업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병행된다면 향후 취업할 분야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성격의 장단점이나 취미 및 특기사항 같은 사항들은 서류작성이나 면접 등의 취업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할 사항들인데, 이를 작성하기에 앞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성격의 장점이나 단점 혹은 취미나 특기 내용을 열거하는 것보다는, 이를 통해 얻은 교훈 혹은 단점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미래의 모습을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동적 명확한 표현을 써야한다는 것이다. '열심히 하겠다'는 정도의 애매한 표현은 엄격히 말해 미래에 대한 설계로 볼 수 없다. 약 10년 단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하고 싶은 일과 되고 싶은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 개발에 힘쓰겠다'는 것보다는, '향후 몇 년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라고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관 확립돼야

또한 스스로의 직업관에 대해 정리해 둘 필요도 있다. 일하는 목적과 일에 임하는 자세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향후 직장인으로서의 미래 모습에 대한 기초적 설계일 수도 있을 것이며, 그보다 앞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업종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글 제공=취업지원팀

35mm 세상



매년, 스스로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이 땅 600여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이들이 범죄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 지난 6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실현과 대체 복무제 개선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서.

염태규 사진부장 snail11@dongguk.edu

소식

영문과 영어연극반 정기공연

영문과영문과 영어연극반 제18회 정기공연이 열린다.

영문과 학생 2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네일 시몬의 'The Sunshine Boys'를 무대에 올린다.

이 연극은 은퇴를 한 두 코메디언이 공연으로 인해 다투게 되고 다시 화해를 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12·13일=오후 4시, 7시, 14일=오후 2시, 5시/ 학림관 소강당/ 문의 011-9886-8440.

성역사와 문화



본교 출판부가 '성역사와 문화'를 발간했다.

이 책은 △성의 역사란 무엇인가 △동서양의 성, 역사와 문화로 나누어 서술되고 있으며 정태섭(역사교육) 교수 등 현재 교양강좌인 '성의 역사'를 강의하는 교수들이 함께 집필했다.

단편적인 성을 다루는데 그쳤던 그동안의 성 관련 서적과 달리 역사적 시각으로 체계적인 성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편, 이 책은 앞으로 교양강좌인 '성의 역사'의 주요재로 쓰일 예정이다.

정태섭 외 지음/ 본교 출판부/ 정가 1만500원.

대산대학문학과

대산문화재단이 창작과비평사와 공동으로 '대산대학문학상'을 개최한다.

공모부문은 시·소설·희곡·평론이며, 응모 방법은 응모작과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를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이번 대회 수상자들은 상금과 함께 세계 문학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해외문학기행'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당선작은 2003년 창작과비평 불호에 실릴 예정이다.

오는 11월 20일까지/ 중로1가 교보빌딩 907호/ 문의 721-3202~3.

금강삼매경론



원효의 '금강삼매경'의 주석서 '금강삼매경론'이 출판됐다.

본교 출판부가 발간한 이 책은 조용길(불교학) 교수가 오랜 연구 끝에 집필을 마무리했다.

또한 기존 금강삼매경론 번역서의 난해함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구성으로 보다 쉽게 정리했다.

특히 불교학을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강삼매경에 쓰여진 단어나 구절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풀이되어 있다.

조용길 지음/ 본교 출판부/ 정가 1만7천원.

교육 관련 심포지엄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우리 교육현실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해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정책의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대 김신일(교육학)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교육 패러다임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정책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본교 박부권(교육학) 교수를 비롯한 많은 교육학 관련 저명 교수들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오는 11월/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 문의 www.asanwelfare.or.kr.

황석영의 맛과 추억



소설가 황석영이 자전적 요리 에세이 '황석영의 맛과 추억'이라는 새로운 책을 발간했다.

가난했던 어린시절의 추억이 묻어있는 음식에서 철모에 삶은 닭, 감방에서 먹은 부침개, 김일성 주석과 함께 한 점심식사에 나온 언 감자국수 등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식들을 군침나게 묘사했다.

또한 그의 맛 철학을 통해 역경과 희망이 교차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의 모습까지 엿볼 수 있다.

황석영 지음/ 디자인 하우스/ 9천원.

독자광고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숙집 구함, 야학교사 모집, 각 동아리·학생회 소모임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분야에 제한없이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GRIG-GRAM

나는 손을 통해 세상을 꾸려갑니다. 손이 부지런을 떨면 땀수룩 나는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때때로 내 가슴이 내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캔버스 위에서 가슴이 움직이는 내 손은 나를 그림니다. 내 가슴속 눈이 보는 세상을 그림니다. 손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세상은 점점 내 것이 되어갑니다. 점점 더 가지게 됩니다. 나는 당신 보다 부자가 됩니다. 나는 **그리고... 그림**입니다.

연락처: 016-253-5627
학생회관 3층

AD.RUSH

광고는 언제나 목마르다...

RUSH

동국대학교 광고 동아리 **AD.RUSH**에서 2학기 신입 부원을 모집합니다. 동국대학교 02학번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학관 3층 **AD.RUSH**로 오세요.

무예 동아리 경당 '치우'가 2002학년도 하반기 신입부원을 모집합니다

뭔가 색다르고 의미있는 생활을 하고 싶은 새내기, 그리고 좀더 보람된 대학생활을 하고 싶은 정든 내기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24반 무예를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동국인이 되어 봅시다.

학생회관 4층 경당치우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 **민들레 홀씨**

문의 회장) 011-9868-4886

대상) 경주캠 2학년

활동) 나눔, 기관방문,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야기

사회복지를 좋아하는 사람 사회복지가 뭔지 알고 싶은 사람 무임승차하지 않고 열심히 일 할 사람 모두 오세요.

WORLD NEWS

영어 듣기요? 월~금 오후 6시 경주캠 원효관 305에서 50분 수업을 들으면 쿠키가 뿔려요. 뿔려! 02학번 여러분, 학생회관 4층 동아리방 문을 두드리세요~

WORLD NEWS

음악 들으러 오세요

따뜻한 소파와 음악이 함께 하는 곳 이곳에 오시면 낭만이 있습니다.

경주캠 학생회관 2층 음악감상실